



샘 브라운백 전 미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대사 ©미 국무부

“中, 전 세계 권위주의 정권 종교 탄압 지원”

중국이 전 세계 권위주의 정권의 종교 탄압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시에 미국 행정부는 국제 종교 자유를 위해 필수적인 여러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중단하고 있다는 증언이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제기됐다.

크리스천데일리 인터내셔널(CDI)에 따르면, 지난 2월 4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종교자유 정상회의 후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프리카 및 서반구 소위원회 공동 청문회에서 국제종교자유대사 출신 샘 브라운백 전 대사는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 종교 자유를 최대 내부 위협으로 간주하는 국가들의 연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브라운백 전 대사는 “공산주의·권위주의·전체주의 정권들의 연합이 신앙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이들은 신앙 공동체를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흐름이 종교 자유를 단순한 인권이나 인도주의 사안이 아니라 글로벌 안보 이슈로 바라봐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공산 정권이 자국 내 모든 종교를 억압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한편, 고도화된 감시 기술을 개발해 다른 독재 국가들과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나이지리아 정부가 중국, 러시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부터 지원을 모색하거나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종교 자유 증진이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미국과 자유 진영 국가들이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경 기자**



제10대 OC여성목사회 회장 이사장 이취임식

**회장 한수지 목사
 이사장 수잔부커 목사 취임**

제10대 OC한인여성목사회 회장 및 이사장 이취임식이 8일 오후 4시 30분 소명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1부 감사예배와 2부 이취임식으로 진행됐으며, 지역 목회자들이 참석해 새로운 리더십의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예배는 이복현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찬송과 기도, 특별찬양, 말씀 선포 순으로 이어졌다.

말씀은 이호수 목사가 여호수아 1장 5-6절 본문으로 ‘리더십의 승계’를 제목으로 전했다. 이목사는 “리더십이 전환되는 중요한 시점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며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고 전했다. 변화의 때일수록 사람보다 하나님 중심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임하는 김선옥 목사는 이임사에서 “새로 취임하는 한수지 목사

님이 잘하시리라 믿는다”며 “모든 조직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한다. 참석해 주시는 것 자체가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목사회가 은혜 충만한 공동체라는 증거를 받게 되길 바라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OC한인여성목사회 회장에 취임한 한수지 목사는 “귀한 중책을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부르심 받은 공동체로서 서로 세워지고 복음 전파에 헌신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또 “성경적 원칙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이 공동체의 기준이 될 것을 믿는다”며 “모든 운영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성장과 회복을 위한 영성훈련과 기도모임을 통해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사장 이취임도 함께 진행됐다. 이사장 이취임사에서 “이 단체가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며 “여호수

아처럼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전념하도록 계속 기도하겠다”고 전했다. 수잔 부커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에 감사드립니다”며 “모일 때마다 기쁨을 나누다 보면 더 큰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는다. 회장단을 잘 보필하며 함께 사역하겠다”고 말했다.

축사와 권면도 이어졌다. OC교협 회장 최국현 목사는 “전임 회장 이사장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여성 사역자들의 헌신은 교회를 세우는 큰 힘”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 임원진이 따뜻하고 아름답게 연합해 지역사회를 섬기고 귀한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OC목사회 회장 정찬군 목사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인용하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며 “목회 기관들이 더욱 가까이 협력하는 관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권면했다. 행사는 축도와 교제로 마무리됐다. **토마스 맹 기자**

독자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미주 기독일보가 종이신문 발행 1000호를 맞이합니다. 기독일보는 그동안 신문을 읽어 주신 독자 여러분의 목소리로 1000호를 채우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독일보는 어떤 의미였는지, 신앙의 여정과 공동체, 사역의 현장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글의 형식은 짧은 단상이나 에세이, 간증 형식, 혹은 몇 문장의 응답도 환영합니다. 보내주시는 글 가운데 일부는 미주 기독일보 종이신문 1000호 특집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소개될 예정입니다. **보내실 곳: chdailya@gmail.com**
 글 분량: 자유 (짧은 글 가능)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리스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라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E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ADU 전문 리모델링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25년 간의 달이와 지문 상감해 보세요”
K-Urban Builders 213-310-1800

BTS SOLAR DESIGN 태양광, 솔라!! *전기세 50~90% 절감*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무료 설치 서비스
 전기차에 필수인 240V 아울렛을 무료 설치해 드립니다.
백업용 배터리 합니다.
 정전에도 끄떡없고 절약을 위한 옵션, 고객님들께 **원가에 제공**
 SCE 지역 필수 / LADWP 선택 옵션
초기부담 없는 \$0 다운부터
 폴 페이먼트 / 할부 결제 / PPA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BTS Solar?
 www.btssolardesign.com

 SCAN ME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텍스 크레딧: 최대 30%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5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월드쉐어 USA 이사장 취임 감사예배 및 토크콘서트 성료

나눔의 사순절 본격 출발

World Share USA(대표 강태광 목사)는 2월 8일 오후 4시, 미주 평안교회 소예배실에서 월드쉐어 USA 이사장 취임 감사예배 및 2026 나눔의 사순절 시작 감사예배를 드리고, 이어 토크콘서트를 통해 사순절을 '나눔의 삶'으로 살아내는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이날 취임 감사예배는 김영구 목사의 인도로 진행됐다. 이 예배에서 이종용 목사(코너스톤교회 원로, 미주 CBS TV 대표)가 월드쉐어 USA 이사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이종용 목사는 취임 인사에서 "큰 교회보다 작은 교회, 흘러진 사역과 놓쳐진 사람들을 다시 붙드는 일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라며, "이민 교회는 1세부터 3세까지 언어와 세대를 넘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역에는 사람과 재정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태광 목사는 인사를 통해 "오늘날 교회는 사랑을 말하지만, 그 사랑이 잘 믿어지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다"며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삶에 안주한 사이, 교회가 사랑과 나눔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현장의 목회자들과 통화할 때마다 처절한 현실 앞에서 멈추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온 교회가 붙들고 기



월드쉐어USA가 이사장 취임 감사예배를 드리고 토크 콘서트를 통해 나눔의 삶에 대해 모색했다.

도해 준 시간이 큰 힘이 됐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눌 때, 세상의 울음에 응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말씀을 전한 관건섭 목사(예은장로교회 원로, 월드쉐어 후원이사장)는 이사야 41장 10절을 본문으로 설교했다. 관 목사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위로, 그리고 신성한 보호의 약속을 담고 있다"며 "최근 이 구절이 많이 검색되는 이유는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확신을 갈망하는 시대의 현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대는 발전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가득하다"며 "이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히브리 산과 심브라와 부아의 이야기를 언급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며,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피

할 길과 지혜를 주신다"고 전했다. 관 목사는 34년간의 중국 선교 경험을 나누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매순간 함께하셨다"고 강조했다.

관건섭 목사의 말씀 선포 후에는 정재원 목사(COREA 이사장)가 영상 축사로 이사장 취임과 월드쉐어 사역을 격려했다. 이어 강순영 목사(JAMA 명예대표)와 정우성 목사(남가주 광업교회)가 차례로 축사를 전하며, 월드쉐어 USA의 사역이 더욱 확장되기를 기원했다.

1부 취임 감사예배는 최학량 목사(월드쉐어 자문위원)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취임 감사예배 후에는 박세현 목사(예수교회)의 진행으로 토크콘서트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는 김요한 목사(LA성암교회), 김영일 목사(더섬기는교회), 이경창 목사(발렌시아샘물교회), 에스라 김 목사(생명의바람교회)가 참여해 각자의 목회

현장과 삶 속에서 경험한 나눔의 의미를 나눴다.

이경창 목사는 "작은 교회와 지지기 쉬운 목회의 자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작지 않다"고 전했다. 에스라 김 목사는 "나눔은 누군가를 돕는 행위를 넘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은혜의 통로"라고 말했다.

이어 민경엽 목사(나침반교회 원로)가 나눔의 사순절 진행을 맞아 "사순절은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시간"이라며, 금식·절제·말씀 묵상과 함께 연합한 이웃을 위한 나눔의 실천을 강조했다. 특히 '한 끼 금식, 하루 1달러 나눔' 등 현실적인 참여 방식이 소개됐다.

이어진 축사에서 김은목 목사(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는 "사순절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 사

랑과 이웃 사랑을 다시 붙드는 시간"이라며 "이번 나눔의 사순절이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토크콘서트 마지막 순서로 박병동 목사(CTS 신학교 학장)가 격려 말씀을 전하며 "사명을 붙든 선배들과 다음 세대를 향해 나아가는 목회자들의 모습이 참으로 귀하다"며, 이 사역이 세대를 넘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월드쉐어 USA는 전쟁과 자연재해 현장에서의 긴급 재난구호 사역을 통해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해 왔다. 또한 아이티·도미니카공화국·아시아와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교육 선교 비전을 품고 사역을 확장하고 있다. 복음 위에 세워진 교육과 돌봄을 통해 지역 사회의 회복과 자립을 돕는 것을 목표로, 2026년 사순절을 맞아 '나눔의 사순절'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김민선 기자

채플린 CPE 공개 강좌

전문 채플린 양성을 위한 교육 서적 출판과 함께 CPE 공개 강좌가 오는 2월 14일(토) 오후 6시, 현장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전문채플린글로벌네트워크 APCGN(Association of Professional Chaplains Global Network)가 주최하며, 채플린 사역에 관심 있는 목회자, 신학생, 의료·군·교정·교육·공공기관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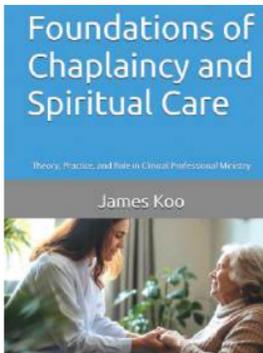
현장 참석은 터스틴(Tustin)에 위치한 APCGN 교육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온라인 참가자에게는 사전 신청 후 Zoom 링크가 개별 발송된다.

이번 공개 강좌는 제임스 구 박사가 집필한 신간 『Foundations of Chaplaincy and Spiritual Care: Theory, Practice, and Role in Clinical Professional Ministry』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 책은 채플린 4 유닛(Clinical Pastoral Edu-

cation, CPE)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교육서로, 채플린 사역의 신학적 기초부터 임상 현장에서의 실제 적용, 채플린의 역할과 윤리까지 포괄적으로 다뤘다.

전통적으로 채플린은 목사 등 안수 받은 성직자로서 병원, 교도소, 군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영적 돌봄을 제공해 왔다. 최근에는 학교, 대학, 기업, 정부기관, 경찰·소방서, 스포츠 조직 등으로 그 사역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임상 채플린(Clinical Chaplain)은 의료 현장에서 환자와 가족, 의료진을 대상으로 영적·정서적 돌봄을 제공하는 전문 사역자로서, 질병과 고통, 상실과 죽음의 순간에 동행하며 인간 존재의 의미와 신앙을 성찰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APCGN 측은 "이번 출판과 공개 강좌는 단순한 이론 소개를 넘어, 실제 임상과 전문 현장에서 바로 적용



제임스 구 교수의 저서

가능한 채플린 교육의 표준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차세대 전문 채플린 양성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사 참가 신청 링크는 웹사이트의 이벤트 카테고리(<https://apcgn.org/category/event/>)에서 찾을 수 있다.

영혼구원을 위한 전도 세미나

틱톡, 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로 소통이 이루어지기 전, 크리스천들이 전도의 도구로 활용했던 전도지. 누구나 한번쯤은 길을 걷다 전도자로부터 전도지를 건네 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뻘한 이야기겠지" 하며, 어느 주머니에 들어갔는지도 모른 채 잊혀지거나, 무심결에 버려지기도 하지만, 언젠가, 빅토빌의 편의점 앞에

서 받은 전도지를 유심히 들여다보다, 이 작은 쪽지가 누군가의 마음에는 가 닿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도지 한 장이 가져올 한 사람의 변화, 그 비전을 붙들고 전도지 보급에 힘을 쏟은 목사가 있다.

재단법인 세계사랑 선교회는(대표 이사산 목사, WLMF) 전도지를 배부한다.

영혼구원에 뜻을 품고 복음을 전파할 사역자, 선교사, 성도님들을 다음과 같이 초대한다.

일시 : 2/28 (토) 오전10시~오후1시
점심제공
생명의양식(한,서,영 각1권씩 무료제공)
각종 전도지, 천국과 지옥 간증지, 샘플(무료제공)
장소 :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대흥장로교회)
연락처 : 213-220-3737(전화 예약 부탁드립니다)



이사산 목사

사순절을 훈련과 실천의 기간으로!

사순절 기간 하루 한끼 금식으로 가난한 이웃에게 소망을 나눕시다

World Share USA 홍보 대사



(고) 전용대 목사

지영 교수

World Share USA 홍보 대사로 섬겨주신 전용대 목사님이 지난 2월 9일에 소천하셨습니다. World Share USA는 목사님의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이어가도록 하였습니다...

World Share USA는 사순절 신앙 훈련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사순절 기간 중에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며 바른 신앙을 키웠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처럼 기도, 묵상, 나눔 그리고 선교가 실천되는 2026년 사순절이 되기를 기도하며 사순절 신앙 캠페인을 펼칩니다! 목사님! 성도님! 교회와 성도들이 사순절을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World Share USA 2026 사순절 캠페인 준비위원장 민경엽 목사님 준비위원 임동

2026 사순절 개요 시작일: 2월 18일~종료일: 4월 4일

World Share USA는 소망학교(아이티, 도미니카), 고아원(수리남), 전쟁 희생 유가족(우크라이나) 돕기를 합니다. 전쟁 희생 유가족, 전쟁 난민(우크라이나) 돕기를 합니다.

어떻게 참가할까요?

- 개인** 월드쉐어USA로 사순절 나눔의 금식에 참가 통보 (가능한 미리 공지 및 통보 해주시면 사순절 기간을 더 잘 보낼 수 있습니다.)하시고, 사순절 금식 선교비를 월드쉐어USA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교회** 나눔의 금식 참가의사를 월드쉐어USA에 알려 주시고, 성도들에게 참가를 권면하시고 성도들의 금식비 선교비를 월드쉐어 USA로 전달하십시오.
- 월드쉐어 USA** 전쟁과 극한의 추위에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국민, 아이티, 수리남, 도미니카 공화국 등 극빈지역 아동들과 소망학교에 영적 양육과 성경 필사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2026 나눔의 사순절 섬기시는 분들



이종용 목사 이사장

관건섭 목사 후원 이사장

민경엽 목사 준비위원장

김은목 목사 준비위원장

심상은 목사 집행위원장

이인규 목사 집행위원장

김영일 목사 준비위원

김정호 목사 준비위원

김바울 목사 준비위원



후원문의 (323)578-7933 강태광 목사
3123 W. 8th St. #206, Los Angeles, CA 90005

기쁜우리교회 “생명은 흘러야 산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

기쁜우리교회(김경진 목사)가 창립 9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 및 추대식을 8일 오후 12시에 드렸다.

김경진 목사는 에스겔 47장 1~8절을 본문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하며, 교회는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 죽은 곳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성전에서 흘러

나온 물이 생명 없는 사해를 소생시키는 장면을 언급하며, 하나님의 생명이 교회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물이 고이면 썩지만 흐르면 살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 은사가 성도들의 삶을 통해 계속 흘러가야 한다”며 “작은 나눔일지라도 그것이 모여 생명의

강을 이루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 교회가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축복을 붙들어 두는 공동체가 아니라 흘러보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교회가 세속적 기준과 경쟁 구조에 머물 때 영적 짐체가 찾아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정과 영향력, 개인적 만족을 앞세울 경우 시기와 질투가 자리 잡고 사랑의 흐름이 막히게 된다. 이러한 모습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기쁨과 뜻을 우선하는 공동체로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베냐민과 삼킴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쁜우리교회가 고통받고 외로운 이들에게 생



기쁜우리교회 성도들이 케이크 커팅을 하고 있다. 기독일보



명수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생명을 살리는 사명과 비전을 불드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했다.

이날 시무장으로 1명, 추대장로 4

명, 시무권사 1명, 추대권사 1명이 세워졌다. 기쁜우리교회 성도들은 이날 감사의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토마스 맹 기자

GBC 나눔 온 희망 온 자선 콘서트

2월 20일(금) - 3월 1일(주일)
남가주 지역 5개 교회서...남성 보컬팀 크룩스 함께해

박해받는 세계교회를 돕고, 소외된 이웃을 돕는 지역사회 공헌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2026 GBC 나눔 온 희망 온 자선콘서트'가 남가주 지역 5개 교회에서 개최된다.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기 위해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는 한국의 남성 4중창 가스펠 보컬팀 크룩스, CRUX가 함께한다.

콘서트 일정
2/20 금 저녁 7시 30분, 부에나파르크 감사한인교회
2/22 주일 오후 5시, 토랜스제일장



GBC 나눔 온 희망 온 자선 콘서트가 남가주 지역 5개 교회서 열린다.

로교회 2/27 금 저녁 7시 30분, 라하브라 지역 복음장로교회 2/28 토 오후 6시, LA 한길교회 3/1 주일 오후 6시, 엘바인 베델교회

후원 티켓은 20달러이며, 미주북 음방송 웹사이트 kgbc.com에서 '나눔 온 희망 온' 배너를 클릭하시면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다. 문의: 714-484-1190

네팔 구금 한인 선교사 추방 결정

네팔에서 20년 넘게 활동하다 체포된 구금 중이던 이용호 선교사가 추방된다.

이용호 선교사는 지난 10일 세계예수교장로회를 통해 자신의 추방 결정 사실을 전했다.

김 목사는 “어느 공항을 통해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미국에서 살던 지역은 LA”라며, LA 공항을 통해 입국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선교사는 지난달 31일 네팔에서 '기독교를 전파했다'는 죄목으로 체포되어 네팔 가트만두 유치장에 구금되었다.

현재 암 4기 대장암, 간암, 림프암으로 투병 중으로, 큰 수술을 마치고 지속적인 항암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 유치장의 열악한 환경 속에

서 제대로 된 치료는 커녕 식사와 식수조차 공급받지 못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용호 선교사는 “힌두의 기독교 말살의 대표 케이스”라고 이번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네팔은 2018년 형사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선교 및 개종 권유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 처벌과 함께 추방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용호 선교사 이메일: yesinhim1@gmail.com



이용호 선교사

제56대 남가주교협 이사회, 신년 시무예배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이사회(이하 남가주교협 이사회)는 1월 27일(화) 오전 11시 30분, 버뱅크에 위치한 이사장 김향로 장로 자택에서 제56대 이사회 신년 시무예배 및 하례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1부 오찬, 제2부 경건회, 제3부 발전기금 전달식, 제4부 하례식 순으로 진행됐다.

제1부 오찬은 서기 권영신 장로의 기도로 시작됐으며, 참석자들은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제2부 경건회는 이득표 장로의

사회로 진행됐다. 최순길 목사 기도, 환경환 장로 성경 봉독, 정완기 목사 특주에 이어, 남가주교협 회장 김은목 목사가 설교했다.

김 목사는 “연합과 섬김을 통해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예배는 지용덕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제3부 발전기금 전달식은 이성우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총무 최영봉 목사가 경과보고를 했다. 이어 이사장 김향로 장로는 인사말을 통

해 “교협의 사역이 더욱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사회가 책임 있는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은목 목사는 답사를 통해 감사의 뜻을 밝혔으며, 감사패 증정의 시간도 함께 마련됐다. 행사 중에는 단체 기념촬영이 진행돼 제56대 남가주교협 이사회의 출범과 새해 결의를 함께 기록했다.

마지막 제4부 하례식은 이충희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옷놀이와 선물 증정 등 친교 프로그램을 통해 참석자들은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모든 일정은 최향량 목사의 폐회기도로 마무리됐다.

이번 신년 시무예배 및 하례식을

통해 남가주교협은 새해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교계 연합과 공적 사명을 재확인했다. 김민선 기자

영혼구원을 위한 전도 세미나

재단법인 세계사랑 선교회(대표 이삼선목사 선교사, WLMF)는 다음과 같이 전도지를 배부하고자 하오니, 영혼구원에 뜻을 갖으시고 복음을 전파하실 사역자, 선교사, 성도님들을 다음과 같이 초대합니다.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점심식사제공, 생명의양식(한,서,영 각1권씩 무료제공) 각종 전도지, 천국과 지옥 간증지, 샘플(무료제공)을 제공합니다.

일시: 2026년 2월 28일(토) 오전 10시~오후 1시
장소: 대흥장로교회(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연락처: 213-220-3737 (전화 예약 부탁드립니다)

- 스페니쉬 - 전도지 간증지(무료배부)
- 백 장 미 - 영어 전도지(무료배부)
- 한,서,영 - 칼라성화 4영리()
- 한,서,영 - 생명의양식 365일()



재단법인 세계사랑 선교회

남가주 어노인팅교회 창립 6주년

남가주 어노인팅교회는 오는 2월 15일(주일) 오후 4시, 교회 창립 6주년을 맞아 임직 감사예배를 드린다. 이번 예배에서는 장로 박성우, 권사 박은주, 명예장로 명순식 집사에게 임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남가주 어노인팅교회는 2020년 2월 16일, 남상권 목사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드린 예배를 시작으로 개척되었다. 현재 교회는 9개 지역 선교를 감당하고 있으며, 장학 사역과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과 양육에 사랑과 헌신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온 가족 예배'를 통해 신앙의 계승과 공동체적 예배 회복에 힘쓰고 있다.

남가주 어노인팅교회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로 알려져 있다. 담임 목사인 남상권 목사는 “교회는 건물



이 아니라 하나님 세우신 사람들의 공동체이며, 지역 사회를 품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라고 강조한다. 남 목사는 설교와 목회를 통해 늘 복음의 본질,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을 강조하며, 지역 사회와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의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

교회 관계자는 “이번 임직은 직분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확인하고 교회를 섬기겠다는 믿음의 고백”이라며 “창립 6주년을 맞아 교회가 걸어온 길을 감사함으로 돌아보고, 앞으로도 말씀과 기도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남가주 어노인팅교회는 앞으로도 선교, 다음 세대, 지역 섬김을 중심으로 한 건강한 교회 모델을 세워가며, 이민 사회 속에서 복음의 등불 역할을 감당해 나갈 계획이다.

주소: 24404 S Vermont Ave Suite 201, Harbor City, CA 90710
예배시간: 주일 1부-8:30AM, 2부-11:00AM, 금요-7:30PM, 새벽: 화-금-6:00AM, 토-7:00AM
문의 전화: 213-800-3651

‘올리브 트리 아카데미’ 에세이 콘테스트 시상식 개최



우드맨라이프 주관 에세이 콘테스트 시상식이 한인타운 크리스천 스쿨인 올리브 트리 아카데미에서 개최되었다.

2월 2일(월) 비영리단체 우드맨라이프(Woodman Life)주관한 에세이 콘테스트 시상식이 LA 한인타운에 있는 ‘올리브 트리 크리스천 아카데미’(Olive Tree Christian Academy, 교장 김수미 목사)에서 진행됐다.

에세이 콘테스트 참가한 올리브 트리 크리스천 아카데미 학생들이 가운데 1,2,3등을 선정해 장학금을 수여했다. 상위 입상자 뿐 아니라 참가한 모든 학생에게 장학금이 수여됐다.

우드맨 라이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고 사람들을 돕기 위해 1890년에 설립되었다. 설립 이래로 다양한 가족의 재정적 미래를 보호하고 미국 전역의 지역사회에 공헌해 왔다. 비영리 생명보험 회사로, 수익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매년 대학을 진학하는 보험 가

입자들에게 \$10,000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고아가 된 자녀들에게 매년 \$12,000을 제공한다.

이날 우드맨라이프 케니 김 메니저는 재정 세미나를 통해 은퇴 후 플랜, 종신생명보험, 기간성 생명보험(Term Life Insurance)에 대해 설명하며 청지기로서 자신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케니김 매니저: 213)210-3331
이메일: Khkim@woodmenlife.org
올리브 트리 크리스천 아카데미는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실력있는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를 키우는 비전으로 세워졌으며, 미국 8천개 이상의 학교와 가정, 세계 180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ACE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 신입생을 모집 중이다.
입학 문의: 626-376-3955, 213-944-2295, olivetreechristianacademy@gmail.com

“남가주 부흥의 불씨 되길”

부모가 드린 서원 기도가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다시 그 한사람을 통해 지역의 변화로 이어지기도 한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김은목 목사(평화교회)는 기독교일보 유튜브 채널 ‘늘 새롭게’에 출연해,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린 부모의 기도가 자신의 목회 여정과 사명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이제는 남가주 교회 전반에 기도의 불씨를 다시 지피는 사역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고백했다.

초등학교 6학년, 목회 소명 품어
김 목사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연극에서 목사 역할을 맡은 계기로, “목사가 돼야겠다”는 마음을 품었다며 회고했다.

자신이 받은 소명을 부모님께 나누었을 때, 의외로 부모님의 반응은 덤덤했다. 이유는 어머니께서는 이미 그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

그의 이 서원은 고등학교 3학년 때 깊은 체험을 겪으며 더 확고해졌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집회 중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슴 깊이 다가왔다. “하나님, 제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요”라는 기도가 흘러나왔

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마음의 감동이 임했다.



“신앙에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남가주 영적 대각성 위해선, 회개기도 선행되어야”

교를 졸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그리고 교회에서 만난 첫사랑이 아내가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한 마음이듯,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한 사람만 사랑하게 해 주세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
김은목 목사는 오늘날 교회 내 기도의 열정이 점차 약해지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했다.

“신앙에서 기도라는 건 우리가 영혼의 호흡이라 한다. 우리는 의식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호흡한다. 신앙생활에서도 기도는 의식적으로도 해야 되지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야 한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또 의식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다시 기도의 불꽃을 재점화하기 위해 김은목 목사는 요일별 기도를 계획하고 있다. 월요일은 목회자로 구성된 중보기도팀을 만들어 2주에 한번 기도원에서 기도모임을 갖고, 화요일은 환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수요일은 국가와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를 연다.

그는 기도는 신비로운 것이며, “목회자들 가운데 기도의 갈급함을 가진 분들이 계신다. 교회 내에서 소리내어 기도하기 쉽지 않

면 목사님들의 영성이 다시 한번 살아날 것 같다”라고 비전을 나눴다.

또 평화교회에서 ‘교회 회복과 선교를 위한 기도 성회’를 개최해온 경험에 대해서도 나눴다. 한 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이동해야 함에도, 그곳에 가서 기도하면 정말 다르다고 말했다.

남가주교회 올해 주력 사역, 기도
김 목사는 남가주 교회가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역으로 ‘연합 기도 운동’을 꼽았다.

이에 따라 매월 정기적인 연합 기도 성회를 시작으로, 오는 10월에는

약 1,200명이 모이는 연합 기도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초기에는 목회자 부부와 교회 대표들이 함께 모이는 소규모 모임으로 시작해 점차 규모를 확대, 남가주 전역의 교회들이 참여하는 기도 운동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미주 이민사회의 영적 대각성을 위해 기도하지만 결국은 ‘회개’없는 불가능하다며, 함께 회개기도를 통해 새로운 영적인 흐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디 한 기자 →12면에서 계속

아버지 밥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
34191 Harvard rd Newberry springs ca 92384

대원 전자동 시설로 만든 왕김밥 4종
새우튀김 김밥/매운 오징어 김밥/참치 김밥/야채 김밥
교회 스페셜 무료 딜리버리
10pcs 한줄 \$4.50 60줄 이상 주문가격
주문의 949-330-9033

2026 NICHÉ BEST SCHOOLS

TRUSTED SCHOOL IN TOWN

EDUCATE ENABLE EQUIP

K-12 PRIVATE CHRISTIAN SCHOOL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Upper Campus
221 S. Juanita Avenue, Los Angeles, CA 90004 Lower Campus

CONTACT US!
(213) 487-5437
ncahuskies.org

메디케어는 **역시!**

센터메디컬그룹

센터메디컬그룹에서만 가능한 혜택



한인 기사 무료 라이드 서비스

한국인 기사가 편안히 택에서 병원으로,
병원에서 택으로, 무료로 모셔다드립니다.



초고속 병원 허가서 발급

미국에서 가장 빠른 리퍼럴 시스템과
승인 절차로 승인받아 바로 진료 가능합니다.



남가주 최다 입원치료 가능

미주 내 80개 이상의 대형 병원에서
편하게 수술 및 입원 치료가 가능합니다



문화·생활 프로그램 혜택

독점적으로 각종 공연, 전시, 축제,
강연, 스포츠 대회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무료 건강 세미나를 원하시거나 장소를 제공해 주실 단체는 888-847-3098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임승하 내과 주치의는

센터메디컬그룹과 함께합니다

환자의 마음을 읽는 내과 주치의

임승하 SEUNG H LIM M.D.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는 곳! 검사부터 치료까지 한번에!

당뇨 / 혈압 / 콜레스테롤 | 영양 & 감기 주사 | 체중관리
이민국 신체검사 | 예방접종 | 종합검진 가능



탑케어 메디칼 센터 | 만성질환 전문내과

2120 W 8th St, #102 (213) 353-4792
Los Angeles, CA 90057

선착순 **200명** 한정
· 무료 인바디 측정
· 닥터 진료 후 영양주사 제공



센터메디컬그룹은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 의료 메디컬그룹 (IPA) 입니다



개그우먼 송은이 “응답은 거창한 성공 아닌, 하나님 사랑하는 것”

FIA 워십 겨울캠프서 삶과 신앙의 고백 전해

개그우먼이자 콘텐츠 제작사 비보(VIVO)의 대표인 송은이가 FIA (Faith In Action) In Campus 겨울 캠프 집회에 참석해 자신의 성공과 성장 이면에 있었던 두려움과 번아웃, 그리고 그 여정을 통과하게 한 공동체와 기도의 힘을 나눴다.

2월 5일부터 6일까지 서울 성수동 성락성결교회에서 ‘부르심과 응답’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집회에는 청년과 청소년을 비롯한 전 세대가 참석해 부르심의 은혜를 나눴다.

송은이는 근황에 대한 질문에 “연예인이라고 특별한 삶이 있는 것은 아니”라며 “눈 뜨면 하루를 잘 살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하루를 마칠 때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 제 일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건강한 노년’을 삶의 중요한 화두로 삼고 있다. 청소년기나 사춘기는 준비 없이 지나왔지만, 노년은 준비할 수 있겠더라”며 “지금부터 건강한 습관과 루틴을 만들어 ‘건강한 할머니’가 되고 싶다”고 전했다.

FIA 워십의 팬이라고 밝힌 그녀는 “아침예배를 드리고 피아워십 찬양을 틀어놓고 예배한다. 실제로 유튜브 시청 기록에서도 피아워십 채널이 2위에 있더라”고 했다.

“회사가 커질수록 두려움도 커져” 비보그룹의 설립과 성장에도 신앙이 밑거름이 됐다. 송은이는 2003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며 “인생의 후반전에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살겠다”는 기



▲(왼쪽부터) 개그우먼 송은이와 FIA 워십 대표 이동선 목사. ©강혜진 기자

도를 드렸고, 그 응답으로 콘텐츠랩 비보가 세워졌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그녀는 “회사가 성장할수록 오히려 두려움이 커졌다”며 “이 모든 것이 제 능력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잘 되는 게 두렵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이어 “2015년 회사를 설립한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 이제 그만하라고 하시면 언제든 내러놓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매일 드리고 있다”고 했다.

다양한 아티스트와 직원들이 이끄는 리더십에 대해 송은이는 “많은 조언을 들었지만 결국 답은 기도였다”고 말했다. 그녀가 붙들고 있는 원칙은 ▲유연하되 중심을 잃지 말 것 ▲문제가 생기면 대표가 책임질 것 ▲그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둘 것이라는 세 가지다.

그녀는 “불 꺼진 사무실에 혼자 남아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다”면서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데까지는 책임을 다하려 한다”고 고백했다.

송은이는 자신이 번아웃을 경험한 가장 큰 이유로 ‘괜찮은 척’을 꼽았다. 그녀는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말하고, 거절하지 못하고 모 든 걸 떠안다 보니 결국 무너졌다”며 “잘 거절하는 것도 기도 제목이었다. 상대방을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정직하게 ‘지금은 어렵다’고 말하는 법을 배우며 회복의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신앙은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자신의 신앙을 지켜준 중요한 기반으로 12년 동안 함께해 온 ‘연예인 연합 예배’ 공동체를 꼽은 송은이는 “연예계가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마음이 다친 사람들이 많은 곳이다. 함께 모여 울고, 기도하고, 서로의 이야기에 증인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큰 힘이 됐다”고 고백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조차 ‘척’하지 않아도 되는 공동체가 정말 중요한 것 같다”며 “솔직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임을 배웠다”고 덧붙였다.

‘부르심과 응답’이라는 캠프 주제에 대해 묻자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다. 응답의 시작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랑이 깊어질수록 행동이 따라오게 된다. 그 행동이 작아 보여도 하나님은 작은 순종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신다”고 강조했다.

송은이는 개인적인 신앙 훈련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나눴다. 그는 “한때 성경 1독조차 쉽지 않았는데 지인의 권면으로 성경 읽기를 시작하게 됐다. 처음에는 벌금이 걸린 단테방에서 시작했는데, 그게 오히려 저를 말씀 앞으로 데려다 줬다”

며 웃었다. 이어 “이후에는 단순한 완독을 넘어, 아침에 눈을 뜨면 말씀을 읽고 예배하며 기도 노트를 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을 들이고 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날은 말과 태도가 확실히 달라진다”며 “이렇게 살면 건강하게 늙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잠언 말씀을 묵상하던 중 ‘허가 사람을 살릴 수도, 찌를 수도 있다’는 사실이 크게 와 닿았다. 방송이나 생활 속에서 웃기기 위해 던진 말이 누군가에게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이후 ‘말로 사람을 찌르지 않고도 웃길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아직 완성된 단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먼저 붙들고 그 다음에 코미디언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고백했다.

마지막으로 송은이는 참석자들에게 “오늘 나는 이야기가 ‘송은이가 이렇다’로 남지 않길 바라고, 하나님을 보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기도제목으로 연계를 위한 중보를 요청한 그녀는 “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다. 그들이 무너지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는다”며 “그들이 무너졌더라도 아픔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그들을 함부로 비난하지 않기를 바란다. 댓 글이라는 글이 칼이 되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했다.

강혜진 기자

한국 CCM 1세대 전용대 목사 별세... 찬양으로 절망 넘어선 삶



한국교회 1세대 찬양사역자 전용대 목사 ©기독교일보DB

한국 복음성가의 초창기를 이끈 찬양사역자 전용대 목사가 9일 소천했다. 향년 66세. 고인은 2023년 말 직장암 진단을 받은 뒤 치료를 이어왔으나 최근 병세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은 1970년대 후반 대중가요 무대에서 활동하던 가수였다. 그러나 성인 소아마비 판정을 받으면서 삶의 방향이 급격히 바뀌었다. 깊은 절망 속에서 여러 차례 극

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신앙을 회복한 이후 음악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길을 선택했다.

1979년 첫 복음성가 음반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찬양 사역을 시작했다. 이후 ‘주여이 죄인이’ ‘주를 처음 만난 날’ 등 다수의 곡으로 교회 안팎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한국복음성가협회 창립에도 참여해 초대 회장을 맡으며 CCM 사역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했다.

암 투병 중에도 고인은 사역을 멈추지 않았다. 주변에 “하루하루가 감사”라는 고백을 전하며 신앙의 태도를 잃지 않았고, 자

신의 삶을 간증 형식으로 나누며 성도들에게 위로로 전했다. 지난해 겨울에는 후배 음악인들이 힘을 모아 후원 공연을 열기도 했다.

동료 사역자들은 “그는 무대 위 가수가 이전에 후배들을 세우는 선배였다”며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며 찬양했고, 언제나 다음 세대를 격려하는 데 마음을 쏟았다”고 회상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강서구 이대서울 병원에 마련됐다. 발인은 11일 오전 10시 30분 진행되며, 장지는 크리스찬메모리얼 파크다. 노형구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에스더 이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평생건강을 좌우하는 한번의 선택”

부모님께 맞는 의사부터
부모님이 찾는 병원까지

SMG에 있습니다

홍보대사 고두심



SMG 연계 병원

UCLA, 시더스-사이나이, 할리우드 장로병원, 세인트 주드, 세인트 조셉, 애너하임 리저널, PIH 굿사마리탄



SMG 연계 보험사

얼라인먼트, 앤섬, 블루실드, 클레버케어, 휴메나, 헬스넷, 몰리나/센트럴헬스, 스캔, UCLA 어드벤처지, 유나이티드, 웰케어

서울메디칼그룹이 5,500명의 의사와
우수한 병원 네트워크와 함께
당신의 건강을 지켜 드립니다

문의전화 **800.611.9862**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카카오톡 채널에
방문하세요!

이 광고에서 사용된 지표는 SMG가 2025년에 남가주 지역의 한인 주치의와 전문의 네트워크 규모에 대해 조사한 내부데이터에 기반한 것입니다. 서울메디칼그룹은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다양한 건강보험과 함께 독립된 의사 네트워크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혜택과 네트워크 규모는 각각의 메디케어 어드벤처지/헬스 플랜과 지역에 따라 다양합니다. 의료 서비스는 건강보험에 따라 제한, 제외, 또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메디칼그룹 800-611-9862로 문의하십시오.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말씀으로 살아가자”

2026 달라스 위브릿지 컨퍼런스에서 김귀보 목사가 ‘말씀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내러티브 설교’ 세 번째 강의를 통해 설교의 본질과 목회자의 권위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강조했다. 그는 설교를 기술이나 전달의 문제가 아닌, 말씀이 성도 안에서 실제로 살아 역사하게 하는 통로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귀보 목사

김 목사는 개척교회와 이민교회, 분열을 겪은 교회에 부임하며 겪었던 다양한 목회 현장을 먼저 나눴다. 그는 “한 교회에서 20년 동안 설교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그 시간 속에서 깨닫게 된 설교에 대한 통찰을 목회자들과 나누고자 이번 강의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설교를 못하는 목사는 없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자신이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그러나 설교 현장에서 목회자들이 종종 놓치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는 성도들은 재미있는 이야기나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 자체’를 듣고 싶어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목회자들은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하면 성도들이 지루해질 것이라 오해하지만, 성도들은 본래 말씀을 기대하며 교회에 온다는 것이다.

김 목사는 “목회자는 성경 이야기의 전문가”라며, 정치나 세상 이야기가 설교의 중심이 될 때 성도들의 마음에는 공허함과 분노가 남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결국 교회 안에 문제와 갈등이 생긴다고 진단했다.

두 번째로 그는 “성도들은 목회자보다 설교를 더 많이 들어온 사람들”이라며, 성도들이 설교의 구조와 흐름을 이미 꿰뚫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이를 두고 “성도들은 설교 듣기의 전문가”라고 표현하며, 목회자의 권위는 말씀씨가 아니라 말씀 그 자체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김귀보 목사는 내러티브 설교의 예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에 서기관이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를 피하고 “자비를 베푸는 자”라고 답한 장면을 언급하며,

이 본문 안에 이미 인간의 내면과 갈등이 녹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내 이야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이것이 내러티브 설교의 힘”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러티브 설교의 위력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도덕적·윤리적 책망으로 끝나는 설교는 일시적인 찔림을 줄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공허감과 무력감을 남긴다고 지적했다. “그렇게 살아낼 힘은 없는데 계속 책망만 받는 느낌이 들게 된다”는 것이다.

김 목사는 성경을 ‘렌즈’를 통해 보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렌즈를 통해 성경을 읽으면 평소 보이지 않

던 인간의 반응과 내면이 드러나고, 요셉이나 다윗의 이야기가 곧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예배와 기도가 무너진 모습, 공허함을 느끼는 모습이 바로 내 모습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내러티브 설교”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도들을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설교의 한계도 언급했다. 성도들은 겉으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반응하지만, 마음속에는 상처와 앙금이 남아 결국 관계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내러티브 설교는 성도들이 스스로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김귀보 목사는 “설교에서 중요한 것은 설교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성도 안에 들어가 역사하게 하는 것”이라며, “말씀이 곧 성도의 재산”이라고 강조했다. 돈이 아니라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다.

그는 대학 시절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앞에서 깊은 의문을 가졌던 경험도 나눴다. 그는 “감사하라는 것은 감정을 느끼라는 명령이 아니라, 의지로 순종하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전했다. 이후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기로 하나님과 ‘약속’을 했고,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하며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이민교회 사역의 현실도 솔직하게 나눴다. 다섯 차례의 교회 이전과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돈을 계산하기 때문”이라며, 재정 계산을 내려놓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돈 계산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만 보자”는 원칙을 교회에 심었고, 그 결과 1원도 없는 상황에서 200만 달러 건물을 구입하는 일도 경험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는 목회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성도들 안에 DNA처럼 심겨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귀보 목사는 “목회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라며, 목회자가 그렇게 살 때 말씀이 성도들 안에 자연스럽게 심겨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도 매주 수요일 교회와 지역을 위해 기도하며 ‘기도의 숲’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개척교회와 연약한 교회일수록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다며,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목회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강의를 마무리했다. 토마스 멩 기자

美 의회 지도자들, 국가 회개 기도회 참석... “기독교적 토대 회복해야”

미국 공화당 주요 정치인들과 전국 각지의 기독교인들이 최근 워싱턴 D.C. 성경박물관(Museum of the Bible)에 모여 국가적 회개와 기도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전 세계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의 현실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가족연구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FRC)가 주최한 ‘2026 국가 기도회와 회개의 날(National Gathering for Prayer and Repentance)’ 행사가 진행됐으며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등 공화당 인사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 미국의 기독교적 유산을 재조명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는 의회 사역 단체 ‘웰버스트(Well Versed)’를 이끄는 짐 갈로우 목사가 시작 기도

를 맡으며 문을 열었다. 갈로우 목사는 국가가 하나님의 축복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며, 역사 속 많은 문명들이 무너진 것처럼 미국도 하나님의 보호를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런 일이 미국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순진하게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며 “지금 드리는 기도회 거룩한 긴급함과 절박함이 담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연설에서 미국의 자유와 번영이 기독교적 토대 위에 세워졌다고 강조하며, 도덕적·신앙적 기반을 잃을 경우 자유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자신이 이 연례 행사의 초기 설립자 중 한 명이라며, 올해 모임이 특별히 회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존슨 의장은 “미국이 가장 자유롭고 성공적이며 영향력 있

는 나라가 된 이유는 유대-기독교적, 성경적 기초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라며 “이 사실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독립선언서가 인간의 평등과 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자유는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싸워 지키고 다음 세대에 가르쳐 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존슨 의장은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지만 우리가 신실한 자로 발견될 길 바란다”고 기도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도 무대에 올라 미국의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

고 있다며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 그는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용서를 구한다. 이 땅을 고쳐달라”고 말하고, 역대하 7장 14절을 인용했다.

크루즈 의원은 “미국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온 사람들이 세운 나라”라며 “분노와 쓰라림이 사랑으로 바뀌길 기도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50개 주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차례로 나와 각 주와

국가를 위한 기도를 드렸다. 미네소타주 상원의원이자 목회자인 앤드루 매튜스 의원은 최근 사회적 갈등과 폭력 사태를 언급하며 회개와 치유를 호소했다.

매튜스 의원은 “우리는 죄를 지었고 악을 행했으며 주의 계명을 떠났다”며 다니엘서 9장의 회개 기도를 인용해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다. 또한 교회들이 위축되지 말고 담대히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 편집고문: 고승희, 김영길, 김중언, 김한오, 류종길, 민중기, 박기호, 송정명, 신성욱, 이상명, 이종용, 임성진, 정우성, 진유철, 한기홍
- 발행인: 이인규
- 편집국장: 맹창현
- 고문변호사: 정찬용
- 지사: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 대표전화: (213) 739-0403
- E-mail: chdailya@gmail.com
- 주 소: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 이사장: 폴킴

커피와 예술이 만나는 공간!

Cafe du Gallery & E.K. Art Gallery

영업/시간 월~토: 9AM~7PM(일요일 휴무)

E.K. ART GALLERY 문의: 323-272-3399
http://www.ek-artgallery.com/ 1123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 말차 라떼·K-스타일 빙수와 함께 즐기는 전시 감상!
- 넓고 시원한 공간, 식물과 예술이 어우러진 감각적 카페!
- LA 코리아타운 한복판에서 즐기는 예술 같은 휴식!
- 작업하기 좋은 와이파이·주차 가능·친절한 서비스!

CAFE du GALLERY

www.cafedugallery.net

나이지리아 플레토주서 목회자·딸·사위 피살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나이지리아 플레토주에서 목회자와 그의 딸, 사위가 무장 공격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6일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생후 3개월 된 손녀는 마체테에 머리를 다치는 중상을 입고 생존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음주의교회연합(ECWA) 산하 복음선교회(Evangelical Missionary Society, EMS)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월 16일 나이지리아 플레토주 바르킨라디 지역 인근 조스-바르킨라디 고속도로에서 발생했다. EMS 소속 선교사이자 목회자인 볼루스 마다키 목사는 딸과 사위와 함께 새로 부임하게 된 선교지로 이동하던 중 무장한 풀라니 목축민들로부터 매복 공격을 받았다.



볼루스 마다키 목사의 생전 모습. 그는 그의 딸, 그리고 사위와 함께 무장 공격으로 인해 숨졌다. © Facebook

새 선교지로 향하던 길에서 벌어진 참극
마다키 목사는 그동안 자군 지역의 잔타2 선교 스테이션에서 사역해 왔으며, 최근 그월 지역 교회협의회(DCC)로 이동 발령을 받은 상태였다. 그는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사역지로 향하던 도중 카사-은딩 다리 인근에서 공격을 받아 현장에서 숨졌고, 동행하던 딸과 사위도 함께 목숨을 잃었다. EMS는 성명을 통해 “그들은 새로운 사역지로 향하던 길에서 도착하지 못했다”고 전하며, 이번 공격이 계획적이고 잔혹하게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당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생후 3개월 된 손녀는 머리에 심각한 자상을 입은 채 방치됐으나 이후 구조돼 생명을 건졌다. 이 아이는 단 한 번의 폭력적 사건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를 모두 잃은 고아가 됐다.

“복음은 피와 눈물의 대가 위에”
EMS 지도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나이지리아 선교의 현실을 언급했다. 이들은 “나이지리아에서 복음은 종종 피와 눈물의 대가로 전해진다”며 “그 피와 눈물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선택한 선교사들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이지리아에서 선교 사역은 성장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수반되는 위험 역시 현실적이고 잔혹하며 지속적”이라며, 이번 사건이 그 엄혹한 현실

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EMS는 이러한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파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박해 속에서도 복음 전파는 계속된다
ECWA 소속 교인들도 이번 사건 이후 신양적 입장을 잇따라 밝혔다. 교인 클레투스 알리는 “박해는 결코 끝나지 않겠지만 복음 전파 역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공격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그들 역시 언젠가는 구원을 받아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믿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인 아이올라 아베지데는 “박해와 죽음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길 기도한다”며 “교회와 유가족에게 위로가 임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리디아 마크 역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신다”며 신자들에게 믿음의 인내를 호소했다.

나이지리아, 최대 기독교 박해국

오픈도어(Open Doors)가 발표한 '2026 세계 기독교 박해 순위'에 따르면, 나이지리아는 기독교인 박해가 가장 심각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됐다.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신앙을 이유로 전 세계에서 살해된 기독교인 4,849명 가운데 3,490명, 약 72%가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승연 기자

이란 시위 통제에 중국 감시 기술 활용 인터넷 차단과 디지털 권위주의

이란 정부가 지난달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을 사실상 전면 차단하고 시위 주도자와 반정부 인사를 색출하는 데 중국의 감시·검열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 인권단체와 외신들은 이란의 강도 높은 인터넷 통제가 중국과의 장기간 기술 협력을 토대로 구축된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기술로 구축된 이란의 인터넷 통제 체계

영국 가디언은 9일 인권 단체 아티클 19가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이란의 인터넷 통제 시스템이 중국 기술을 핵심 기반으로 삼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미국의 GPS에 대응해 운용하는 위성항법시스템 '베이더우'와, 중국 내 소수민족 감시에 활용돼 온 얼굴 인식 기술 등이 이란의 디지털 통제 인프라에 포함됐다.

이란은 지난달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자 약 9천30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의 인터넷 접속을 거의 완전히 차단했다. 이로 인해 시위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자와 대규모 인권 침해 정황이 외부로 알려지는 데 심각한 제약이 발생했으며, 희생자 규모는 현재까지도 정확히 집계되지 않고 있다. 시위가 진정된 이후에도 인터넷은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해 이용자들이 간헐적으로만 접속할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버 주권’ 기조 아래 수십 년간 이어진 협력

아티클 19는 이번 보고서에서 이란의 인터넷 차단과 감시 체계가 단기간에 구축된 것이 아니라, 중국과 이란이 ‘사이버 주권’이라는 공통된 비전을 공유하며 수십 년간 추진해 온 협력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사이버 주권은 국가가 자국 내 인터넷과 정보 흐름에 대해 절대

적인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는 개념으로, 중국이 오랜 기간 강조해 온 디지털 통치 원칙이다.

◆화웨이·ZTE부터 안면 인식 기업까지 공급 확대

중국 기업들은 화웨이와 ZTE 등 통신 기업의 인터넷 필터링 장비를 비롯해, 히크비전과 티안디 등 카메라 제조업체의 감시 기술을 이란에 공급해 왔다. 특히 안면 인식 기술을 제공하는 티안디는 스스로를 ‘감시 분야 세계 7위 기업’으로 소개하며, 이란 혁명수비대와 군에 관련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ZTE와 화웨이는 이란 당국에 심층 패킷 검사(DPI) 기술도 제공했다. DPI는 인터넷 트래픽을 광범위하게 분석·감시할 수 있는 기술로, 중국에서는 텐안먼 사건이나 티베트 관련 정보를 다룬 웹사이트 접근을 차단하는 데 활용돼 왔다. 인권단체들은 이 기술이 검열을 넘어 광범위한 감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란 넘어 확산되는 중국산 감시 기술 논란

가디언은 이란만이 중국 감시 기술의 고객은 아니라고 전했다. 지난해 공개된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중국 기업들이 카자흐스탄과 파키스탄, 미얀마, 에티오피아 등에도 정교한 검열 및 감시 시스템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제엠네스티 연구원 유레 반 베르겐은 “DPI 기술이 실제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제공업체로부터 정확히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특정 앱이나 VPN 프로토콜을 차단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더 저렴한 방식으로 웹사이트 접속 자체를 차단하는 데 활용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홍은혜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p>LA 지역</p> <p>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영혼의 섬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평년기초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 토 오후 3:00</p> <p>김성식 담임목사</p> <p>LA백송교회 백합회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p> <p>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내세대에 예배 9:15) 3부예배(자세대에 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영혼의 섬 내적치유 영성집회 www.LASarang.com (화-토) - 오전 6:00 수요중보기도회 온라인 오후 8시</p> <p>김기섭 담임목사</p> <p>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1세대)을 위로하며, 선교를 영혼을 승화시키는 교회</p> <p>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386-2233</p>
<p>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일예배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전 9:00</p> <p>써니김 담임목사</p> <p>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p> <p>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p>	<p>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청소년예배 오전 10:50 토요일전새벽예배 오전 6:30</p> <p>한천영 담임목사</p> <p>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p> <p>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p>
<p>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p> <p>엘리아 김 담임목사</p> <p>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p> <p>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p>	<p>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p> <p>진유철 담임목사</p> <p>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여가는 예배공동체</p> <p>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p>
<p>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p> <p>박은성 담임목사</p> <p>나성영락교회</p> <p>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p>	<p>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김성원 담임목사</p> <p>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를 새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p> <p>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분당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분당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5부예배 오후 11:30 교육관 1층 주일6부예배 오후 11:30 교육관 1층 주요성경기도회 오전 10:00 분당</p> <p>CMC 중교동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CMC소망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주요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주요성경기도회 오전 10:00 분당</p> <p>김지훈 담임목사</p> <p>동양선교교회</p> <p>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466-1234 Email: omccofice1@gmail.com</p>	<p>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주요성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EM Worship Sunday 2:00</p> <p>김일형 담임목사</p> <p>새생명오아시스교회</p> <p>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p>
<p>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p> <p>강지원 담임목사</p> <p>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애호가 삼이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p> <p>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p>	<p>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일새벽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p> <p>이수호 담임목사</p> <p>올림픽장로교회</p> <p>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p>
<p>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교회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p> <p>서사라 담임목사</p> <p>주님의사랑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p> <p>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vechristianchurch@yahoo.com</p>	<p>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라티노 오후 5:00</p> <p>신승훈 담임목사</p> <p>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p> <p>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p>
<p>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온라인</p> <p>김형섭 담임목사</p> <p>세계선교교회</p> <p>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한국학교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일새벽 오전 6:00</p> <p>고광선 담임목사</p> <p>한길교회</p> <p>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 (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p>
<p>주일예배 오전 10:30 토요일새벽예배 새벽 6:30 EM 주일예배 오전 10:30</p> <p>한현중 담임목사</p> <p>LA장로교회</p> <p>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 407-1600</p>	<p>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국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p> <p>곽부환 담임목사</p> <p>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p> <p>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p>
<p>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p> <p>국윤권 담임목사</p> <p>충현선교교회 블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p> <p>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p>	<p>주일예배 1부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p> <p>김은광 목사 백승유 목사</p> <p>우리가교회 성도된 우리가 교회입니다</p> <p>3435 Wilshire Blvd. # 570(SF), L.A. CA 90010 T. (323)610-6989, www.woorigachurch.org</p>
<p>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p> <p>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p>	<p>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p> <p>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p>
<p>사우스베이 지역</p> <p>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p> <p>이호민 담임목사</p> <p>가디나선교교회</p> <p>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p> <p>이형영 담임목사</p> <p>남가주기쁨의교회</p> <p>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p>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윤성현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김정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714) 719-2244 / dkpc.org

김경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가명훈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KM장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묘미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c.org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방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C/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리투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6:7)

12413 E. 195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정유성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EM예배 11:00am
주일2부예배 9:30am 수요찬양예배 7:30pm
주일3부예배 11:15am 토요일예배 6:00am
주일고육부예배 11: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org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영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장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여대대학원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토)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이우호 담임목사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밸리구구재단: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구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지영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림학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회 오전 9:30(목)
제자서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김한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00 성령 영애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말론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박신웅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여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청년부 오후 2:30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9:15 토요일성령찬양예배 오전 5:30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0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찬양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당본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박훈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김종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월/수/금) 새벽 6:00 (토/주일) 새벽 6:00

오렌지카운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주혁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2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신용환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교회학교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유치부, 원동부,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00 평일유치부, 원동부,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토요일 오전 6:0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00
금요성령찬양 오후 7:30(매달 마지막 금요일)

주님세운교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15-4020

LA 동부 지역

유영담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찬양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신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org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구경모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 오전 6:00
영아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최원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월-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622-2324, F. (909)622-1480 / inlandchurch.org

끝나지 않은 박해 달라진 미국의 태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웬디 유르고의 기고글인 '기독교 박해는 끝나지 않았다. 달라진 것은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다'(Christian persecution has not ended. What has changed is US's response)를 8일(현지시각) 게재했다. 웬디 유르고는 기독교 보수 성향의 핀테크 기업 리버어 페이먼트스(Revere Payments)의 창립자이자 CEO로, 미국 내 주요 신앙 기반 및 자유 가치를 지향하는 단체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는 신앙과 자유, 그리고 가정의 회복과 강화를 주제로 글을 쓰고 강연하는 작가이자 연사이기도 하다.



웬디 유르고 ©Christian Post

다음은 기고글 전문. CP에 「기독교 예배가 범죄가 될 때: 현대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시대」라는 제목의 필자 글이 실렸을 때, 그 글은 이미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몸으로 알고 있는 현실을 기록한 것이었다. 오늘날 예배 자체가 위험한 행위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신자들은 정치 활동이나 폭력 때문이 아니라, 단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이유만으로 표적이 되고 있다.

와 중동 일부 지역에서는 전쟁을 가까스로 견뎌낸 기독교 공동체들이 다시금 압박과 강제 이주,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이집트에서는 법적 보호가 불균형적으로 집행되며, 간헐적인 공격과 예배 제한이 반복되고 있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와 연계된 폭력이 점점 더 기독교 민간인을 겨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신앙 환경 중 하나가 형성되고 있다. 남아시아, 특히 인도에서는 법적·사회적 압력이 결합된 형태의 박해가 확산되고 있다. 반(反)개종법, 군중 폭력, 선택적 법 집행이 예배를 방해하고 목회자를 위협하며 일상적인 신앙 표현을 범죄화하는 수단으로 점점 더 활용되고 있다.

그 글이 게재된 이후 몇 주 동안, 박해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 지역에서는 더 격화되었다. 달라진 것은 박해의 현실이 아니라, 미국의 태도였다. 기독교 박해는 오늘날 가장 광범위하면서도 가장 과소 보도되는 인권 위기 중 하나다. 2026년 '세계 박해 감시 목록(World Watch List)'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 3억 8,800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이유로 심각한 박해나 차별에 직면해 있다.

이 모든 현실은 올해 1월에 기록된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정확했음을 입증한다.

가장 최근의 집계 기간 동안 신앙을 이유로 살해된 그리스도인은 약 4,900명에 달하는데, 이는 종교적 동기가 명확히 확인된 사례만을 포함한 보수적인 수치다. 실제로는 많은 지역에서 죽은 자체가 공식적으로 기록되지도 않는다. 이 수치들은 오래전부터 경고되어 온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는 개별적 사건들의 집합이 아니다. 무관심, 허술한 법 집행, 그리고 책임 부재 속에서 유지되어 온 지속적인 글로벌 패턴이다.

관여에서 집행으로: 미국의 전환

시간적 맥락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26년에 처음으로 기독교 박해 문제에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이미 외교적 압박, 공개적 규탄, 국제적 감시를 통해 종교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는 표면되어 왔다. 그러나 관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박해의 책임자들이 개인적 대가를 치르지 않는 한, 변화는 일어나기 어렵다. 1월 이후 달라진 것은 인식이 아니라 집행(enforcement)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미국은 종교 박해에 가담한 개인들에게 실질적인 결과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가장 대표적인 조치는, 종교 자유 침해를 지휘하거나 조장하거나 실행한 국가·비국가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한 비자 제한 조치다. 이 정책은 2025년 12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에 의해 발표되고 시행되었으며, 나이지리아를 시작으로, 심각한 종교 자유 침해 전반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상징적 조치가 아니다. 정치 엘리트, 무장 세력 지도자, 박해 지역의 공직자들에게 미국 입국은 정당성, 이동성, 기회의 상징이다. 그 길을 차단하는 것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박해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계속되는 기독교인 대상 폭력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공격은 여러 지역에서 이어지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극단주의 폭력이 여전히 파괴적인 속도로 계속되고 있다. 기독교 마을이 습격당하고, 교회가 불타며, 목회자들이 살해되고, 예배 중이던 신자들이 납치되고 있다. 특히 나이지리아는 여전히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나라로 꼽히며, 가해자들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아프리카를 넘어, 국제적 관심에서 벗어난 지역들에서도 박해는 계속된다. 시리아

최승연 기자

할리우드 배우 팀 앨런 13개월에 걸쳐 성경 완독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할리우드 배우이자 코미디언인 팀 앨런이 성경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다고 밝히며 자신의 신앙 여정을 공개했다고 8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앨런은 지난 4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13개월 동안 단 한 가지, 페이지마다 건너뛰지 않고 성경 전체를 읽었다"고 전했다.

사도 바울 연구로 깊어진 신학적 성찰 팀 앨런은 최근 코미디언이자 정치 평론가인 빌 마허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클럽 램덤'에 출연해 자신의 신앙과 신학에 대한 생각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그는 사도 바울의 서신, 특히 율법과 죄, 인간 본성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미국 배우이자 유명 코미디언인 팀 앨런. ©기독교일보 DB

앨런은 바울이 율법을 죄를 제거하는 도구가 아니라 죄를 드러내는 역할로 설명한 점이 오랫동안 자신이 공부해 온 철학적 관점과 크게 달랐다고 전했다. 그는 대학 시절 철학을 공부했지만, 철학이 삶의 근본적인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을 주지 못했다고 회상했다.

예루살렘 방문 통해 현실로 다가온 복음서

앨런은 예루살렘을 방문해 예수와 관련된 성경의 장소들을 직접 둘러본 경험도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체험을 통해 복음서의 기록이 추상적인 종교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건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특히 기독교 박해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변화된 사도 바울의 삶은 앨런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밝혔다. 그는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인간 내면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했다.

최승연 기자

이탈리아 교회 일치 협약 체결 이후 복음 전도 위축 우려 제기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이탈리아에서 가톨릭과 정교회, 개신교, 일부 복음주의·오순절 교회가 참여한 국가 차원의 교회 일치 협약이 체결된 이후, 복음 전도와 신학적 정체성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고 9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이탈리아 복음주의 연맹(Italian Evangelical Alliance)은 해당 협약이 복음주의 신앙과 전도 사역에 중대한 함의를 지닌다고 신학적·실천적 우려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연맹은 지난 2월 발표한 성명을 통해 ‘기독교 교회 간 언약(Covenant Between Christian Churches)’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협약은 지난 1월 23일 이탈리아 바리(Bari)에서 체결됐으며, 18개 기독교 교단과 단체의 대표들이 서명에 참여했다. 협약에는 이탈리아 주교회의 의장인 마테오 주피(Matteo Zuppi) 추기경을 비롯해 정교회 지도자들, 알도파 교회, 침례교 연합, 이탈리아 복음주의 교회 연맹 소속 교단 지도자들이 포함됐다.

이번 협약은 참여 교회들이 서로를 기독교 공동체로 인정하고, 공동 증언과 협력을 추구하며, ‘모든 형태의 경쟁, 개종 강요, 과도한 확장’을 지양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전도와 개종 문제를 둘러싼 이 문구는 일부 복음주의 진영에서 복음 전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번 바리 협약은 이탈리아 내 오랜 에큐메니컬 흐름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1993년 베네치아에서 지역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처음 출범한 이후, 현재 19개 도시에서 가톨릭, 정교회, 전통적 개신교 공동체들이 연합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다만 이러한 협력이 국가 차원의 공식 협약으로 체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탈리아 복음주의 연맹은 성명에서 이번 협약이 기독교 일치를 ‘공동 세례’와 제도적 화해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신학적 틀에 기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맹은 이러한 접근이 교리적 차이

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일치를 절대적 가치로 다룰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복음주의 전통에서 핵심으로 여겨지는 성경적 복음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차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연맹은 협약 제2조에 명시된 ‘개종 강요 금지’와 ‘자매 교회로서의 상호 확대’ 조항을 문제 삼았다. 해당 조항이 로마 가톨릭 교회와 복음주의 교회를 신학적으로 동등한 위치에 두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이는 종교개혁 전통에 기반한 복음주의 신학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연맹은 ‘개종 강요 금지’ 원칙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가톨릭이나 정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전도 활동이 협약의 틀 안에서 비윤리적이거나 부적절한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연맹 지도부는 이러한 해석이 복음주의 교회의 전통적 전도 사역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화해의 교회(Church of Reconciliation)’로 알려진 오순절 교회가 참여해 주목을 받았다. 이는 이탈리아의 은사주의·오순절 계열 교회가 국가 차원의 에큐메니컬 협약에 참여한 첫 사례로 평가됐다. 그동안 이탈리아 오순절 운동의 상당수는 제도화된 에큐메니컬 구조 밖에서 독자적인 노선을 유지해 왔다. 이탈리아 복음주의 연맹은 이번 참여가 이탈리아 오순절 진영 전반의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개별 교회의 선택에 따른 예외적 사례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2014년, 이탈리아 하나님의성회(Assemblies of God in Italy)와 이탈리아 오순절 교회 연맹 등 주요 오순절 단체들은 복음주의 연맹이 주도한 선언문에 동참한 바 있다. 당시 선언문은 로마 가톨릭 교회와의 에큐메니컬 참여가 ‘화해 불가능한 신학적·윤리적 차이’로 인해 수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승연 기자

NFL 팀 채플린, 슈퍼볼 무대에서 신앙과 삶의 기준을 말하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슈퍼볼 LX를 앞둔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에서 팀 채플린 제임스 미첼의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미첼은 최근 스포츠 전문 기독교 매체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최정상 무대에 서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펼치고 있는 자신의 사역과 철학을 전했다. 그는 승패와 기록을 넘어, 선수들이 가정과 삶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팀 채플린 제임스 미첼 © Screenshot/YouTube/Sports Spectrum

미첼은 인터뷰에서 패트리어츠 선수들이 이번 주 착용한 ‘Be a blessing’ 문구의 의미를 언급하며, 이 표현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삶의 태도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선수들에게 축복받는 존재가 되기보다, 주변에 축복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메시지는 경기 준비로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에도 팀 내부에서 반복적으로 공유되고 있다.

선수들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안에서 소규모 성경 모임을 진행하며 사역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팀 채플린으로서 미첼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목표는 선수들을 ‘좋은 남편’이자 ‘책임 있는 아버지’로 세우는 일이다. 그는 한 멘토로부터 ‘풋볼을 가르치듯 인생을 코치하라’는 조언을 들었고, 이를 사역의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수 개개인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다, 각자의 삶에 동행하며 필요한 순간에 곁에서 역할을 감당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미첼은 선수들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분별을 중시한다고 밝혔다. 그는 누구에게 언제 어떤 이야기를 전해야 하는지는 개인의 준비 상태에 따라 다르며, 그 판단을 성령의 인도에 맡기려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이 받은 영향을 선수들에게 전하고, 그 선수들이 다시 팀 내에서 선한 영향력을 확산하도록 돕는 구조를 지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패트리어츠 구단 내부에서는 선수와 코치, 그리고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성경 모임이 운영되고 있다.

최승연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마지막주)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금요일 오후 7: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d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1부 07:30AM -1부 09:00AM -평일(화-금) 05:00AM
-2부 09:15AM -2부 11:00AM -토요일 06:00AM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대예배 11:00 AM Youth (8th - 12th) 11:00 AM
이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7:30 PM
유아, 유치부 (2-5세)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영아부 (24개월 이하) 11:00 AM

장수영 담임목사

언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주일예배 (KM) 오전 10:30 중,고등부 (Youth) 오전 10:30 **최현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EM) 오전 10:30 대학청년부 (College) 오전 10:30
유년부 (K-2) 오전 10:30 중보기도 (Intercessory prayer) 오전 9:40
초등부(3-5) 오전 10:30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9 Email: joonim0623@gmail.com

예배시간 매주오전 11:00

강문수 담임목사

로렘나무교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3133 Le Parc #1003, Chino hills, CA 91709
T. (909) 519-0876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타주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후 12:30 **김경천 담임목사**
주일 2부 오후 12: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동아요 내 길에 빛이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중,고등부(아기레슬) 오전11: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아부(베임베를)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말-토) 오전6:00
초등부 오전11:00 Youth 금요일(금) 오후 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이정현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주일 2부 9:30AM 수요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말-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손형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오영환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일(영예)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말-토)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오후 12:30 **이건창 담임목사**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화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Santa Clarita,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ool.org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경회 저녁 7: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말-토) 오전 6:00
주일 3부 영아예배 오후 1:00

이충환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T.(818)363-5887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박성호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7:00

베이크스필드 ANC은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오전 11:00 **송금관 담임목사**
주일 성경공부 풍요로운 삶 오전 9:30
최소 3.33 기도회 매일 둘째주 오전 10:30 목요일 TEE 영육 Zoom 오후 7:30
목요 거리전도 오전 10:00 한인타운 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6:00

평강교회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
T. (213)393-9136 http://pyongkang.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강일진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0:15 (한국어, 스페리니쉬)
주일예배 3부 오후 12:15 (한국어, 교육부)
새벽예배(말-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임인철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30 수요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30 새벽예배(말-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V 89147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송상용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이정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참기도회 오후 7: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7:00 E.lvkchurch@gmail.com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장년예배 1부: 오전 9: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회 수요일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금요일 오후 7:00

조용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예배 7:00 PM
새벽기도회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종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woorijoeunchurch.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9시 새신자 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
주일 2부 예배 오전 10:45 제자훈련 주일 오후 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금요일예배 저녁 7시
Youth 오전 10:45 오후 1시 새벽예배 오전 6시(화-금)

김광석 담임목사

라운드락교회

2011 Cade Lk, Round Rock, TX 78664
T.(512)228-1934 https://www.rkpc.net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크리스천 비즈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inex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nwood Ave. Los Angeles, CA 90008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신가요?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스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축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치질! 수술없이 시술로도 가능한가요?

치질증상으로 항문소양증, 항문과 꼬리뼈 통증 출혈로 앉기도 두렵고 매번 화장실 가는것도 무섭다. **초강력 정력제 \$70**

3대째 가업 **영선한의원 213.380.7800**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고기, 김치만두, 찹쌀 모방떡,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FOP SERVICE, INC. License# 1139798

FOP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40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타인을 발견하기

GIFT for Community(대표: 전 달훈, 리디아전)와 GIFT전인코칭 전문학교는 1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매주 화 오후 7시부터 9시 까지 총 4주간, 애너하임에 위치한 더 블레싱 교회(피세원 목사)에서 "GIFT찾아가는 서비스 /회복과 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 제1호 -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타인을 발견하기'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다양한 연령과 배경을 가진 참가자들이 함께 했다.

몸 · 마음 · 영혼을 아우르는 전인적 회복의 여정

이번 세미나는 리디아 전 박사와 전달훈 박사가 공동 강연자로 나서, 학문적 전문성과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의학·심리학·뇌과학·신앙을 통합한 전인적 회복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전달훈 박사는 뇌 발달과 신체 건강의 관계, 암과 성인병 발달과 스트레스 및 정서·관계의 연관성에 대해 설명하며, 예방과 회복 관점에서 전인 건강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였다.

신체 질병은 단순한 육체적 문제가 아니라 정서, 관계, 삶의 방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의학 연구와 함께 나누었다.

리디아 전 박사는 뇌과학을 기반으로 한 애착이론과 내적 작동 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함께 설명하며, 어린 시절 뇌가 급속히 발달하는 시기에 형성된 애착 경험이 오늘날의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 연인 관계, 대인관계 전반은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와 믿음의 경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소개하였다.

참석자들은 자신의 내면에 여전히 자라야 할 '미성숙한 어린 아이'가 존재함을 발견하고, 그 아이를

외면하기보다 이해하고 사랑하며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길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변화는 타인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내면의 성숙을 이루어 갈 때 관계가 달라진다는 중요한 통찰도 나누었다.

이번 제1차 프로그램은 애너하임 더 블레싱 교회와 협력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GIFT for Community(비영리 단체)와 GIFT 전인코칭전문학교는 앞으로도 교회, 공공기관, 지역 단체 등 요청하는 곳을 직접 찾아가 회복과 성장 세미나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김민선 기자



→4면 기사 (남가주 부흥의 불씨)에 이어서

이기주의를 넘어 다음 세대와 하나 되는 교회

김 목사는 최근 교계의 위기를 '탈교회'를 넘어선 '극단적 이기주의'라고 진단했다.

"신앙마저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를 따지는 이기주의는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시는 부분"이라며, 회개와 연합을 강조했다. 특히 시니어 세대와 15세, 2세대가 기도로 하나 될 때 이민 교회의 소망이 있음을 역설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김 목사는 '기도'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메

시지를 전했다. 이처럼 기도는 한 부모로부터 그 자녀에게로, 다시 그 자녀를 통해 남가주라는 한 지역 전체로 이어지고 있다. 1월 25일 시작된 기도가 10월의 1,200명으로, 나아가 남가주 전역의 영적 대각성으로 이어질지 교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단신

▶ 세리토스선교교회 창립 41주년 정성욱 목사 초청

세리토스선교교회(방상용 목사는)는 2월 15일(주일) 교회 창립 41주년을 맞는다.

정성욱 목사(덴버신학교 교수)가 메시지를 전하며, 지명현 목사가 15일(주일) 오후 1시 30분 본당에서 찬양 부흥회를 이끈다.

▶ 주님의영광교회 부흥회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 목사는)는 2월 6일(금)부터 8일(주일)까지 황성은 목사를 초청해 부흥회를 개최한다. 2월 6일(금)과 7일(토) 오후 7시 30분, 2월 8일(주일) 1·2·3부 예배

▶ 제2회 미주 이단 대책 세미나 2월 17일(화) 오전 10-2시 한

길교회에서 제2회 미주 이단 대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현대종교 이사장 겸 편집장인 탁지일 교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단 트렌드 분석 ▲하나님의교회 예방과 대처 방안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한편, 남가주 평신도를 위한 이단 세미나도 함께 진행된다.

2월 18일(수) 오후 7시 30분 총현 선교교회

2월 20일(금) 오후 7시 30분 사랑 의빛선교교회

2월 22일(주일) 오후 1시 동양선교교회

2월 22일(주일) 오전 11시 LA성암교회 주일설교

▶글로벌 비전 커뮤니티 한의 치료 글로벌 비전 커뮤니티

(Global Vision Community)가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통증 완화를 돕기 위해 무료 및 적정 비용의 침술·한의 치료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장소는 1442 Irvine Blvd. STE 108 Tustin, CA 92780.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 오후 3시
격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 후
문의: 949-667-0264

714-393-4595(문자)

▶ 김재원 집사 간증 집회
동부사랑의교회(우영화 목사는)는 2/27 금 7:30 pm 김재원 집사(전 KBS 아나운서)를 초청해 간증집회를 연다.

김재원 집사는 남가주사랑의교회 2/28(토, 5:30pm), 3/1(주일 1-4부 예배)에서도 메시지를 전한다.



ADU 전문

리모|델|링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시공

실내구조
변경

집수리
일체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25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상담해 보세요”

K-Urban Builders
CSLB # 854389

견적 상담 LA 213-310-1800
2621 W. Olympic Blvd. # 205
Los Angeles, CA 90006

견적 상담 OC 213-798-2200
Show Room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강준민 칼럼

사건과 반응 사이에서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제가 극심한 영적 침체를 겪고 있을 때 제게 찾아온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장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문장들이 쓰러진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짧은 한 문장이 우리 삶의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좋은 문장을 찾기 위해 책을 읽습니다. 물론 저의 삶을 지탱시켜주는 가장 강력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생명이니.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성경은 지혜를 제공해주지만, 그 지혜를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목상이 필요합니다. 목상 가운데 우리는 구체적인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고 있는 이 '구체적인 방법'을 잘 안내해 주는 것이 바로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과 함께 책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책을 떠올립니다. 제가 깨달은 성경

의 진리를 잘 설명해 주는 책을 생각합니다.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할 때, 그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풀어 줄 명문장과 명언, 예화와 이야기가 담긴 책을 떠올립니다. 특별히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삶의 기술을 알려 주는 책을 생각합니다. 책을 읽다가 저를 멈추게 하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경탄하게 만드는 글들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문장이 성경의 어떤 말씀과 연결되는지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좋은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모든 좋은 지혜의 근원은 성경이며, 모든 참된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셔서 놀라운 글을 쓰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서적 속에 담긴 지혜를 함부로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사서오경을 읽어보셨는지요. 고전을 읽어보셨는지요. 고전은 오랜 세월 동안 살아남은 책들입니다. 매년 한국에서는 6만 권이 넘는 책이 출판되지만 대부분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반면 고전은 여전히 살아남아 우리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전이 시대를 초월한 인생의 문제와 인간의 본성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적용 가능한 깊은 깨달음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찾아온 좋은 문장들 가운데 몇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정신과 의사 칼 매너거의 말입니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다." 이 문장은 사건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건 자체보다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사건 그 자체보다,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

느냐가 우리의 삶을 좌우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을 만나면 쉽게 그것을 '불행'이라 규정하며 좌절하곤 합니다. 사건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고, 결국 부정적인 감정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반대로 사건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마음이 맑아지고, 상황에 지혜롭게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문장과 연결되어 또 하나의 문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반응이다." 찰스 스윈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당신에게 일어난 일의 10%와 그에 대한 당신의 반응 90%로 이루어진다." 스토아 철학자 에피테토스도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일에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이다." 저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부정하거나 외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는 때로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며, 반응이라고 말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약 1:2-4). 야고보는 시험이 찾아올 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권면합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목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찾아온 혹독한 시련은 그들을 무너뜨리지 않고 오히려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의 시련은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웠고, 그는 역경을 넘어 만민의 생명을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창 50:20). 요셉은 사건을 긍정적으로 해석했고, 믿음

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했습니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반응이다"라는 문장을 통해 저는 반응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무렵 또 하나의 문장을 만났습니다. 빅터 프랭클의 말입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성숙과 행복은 그 반응에 달려 있다." 우리 인생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존재하는 이 '공간'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저는 종종 신랄한 시인의 짧은 시 '불행'을 떠올립니다. "던지지 마라/ 박살난다/ 그것도 잘 주무르면/ 욕이 되리니" 시인은 불행을 거부하거나 함부로 다루면 우리 삶이 깨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불행을 피하지 않고 정성껏 마주하며 견뎌낼 때, 그것은 결국 보석과 같은 삶의 열매로 변할 수 있다고 노래합니다.

어느 날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반응이다"라는 문장을 목상하던 중, 또 하나의 도전적인 문장을 만났습니다. "반응만 하지 말고 창조하라." 이는 사건에 끌려 다니며 반응만 하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는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삶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초대처럼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험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갈렙은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며 헤브론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해석과 반응입니다. 사건과 반응 사이에 존재하는 그 공간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진유철 칼럼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모두에게 은혜와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비대칭적인 능력의 전능자이시지만, 내게 고난과 불행이 오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분

은 아닙니다. 때로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고난을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all things)"은 힘든 것, 괴로운 것, 슬픈 것, 어려운 것, 마음이 아픈 것 등을 모두 다 포함합니다. 또 "협력"이란 단어의 뿌리인 헬라어 "수네르게오(sunergeo)"는 단순히 여럿이 모여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함께(sun) + 일하다(ergo)'라는 아주 역동적인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래한 "synergy(시너지)"는 현대 사회에서 '동반 상승효과'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덧셈에서는 1+1=2가 정답이지만, 시너지의 세계에서는 다릅니다. 상호작용과 비대칭적 도약이 만들어져 10, 50, 100이 되어서 거대한 장벽을 뛰어넘는 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지난 주간 '너는 복이 될지라'는 약속의 말씀을 위해 우리들 믿음의 그릇을 크고 넓고 깊게 만드시는 하늘나라 큰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재단법인 복미순복음선교회가 주관하는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연합조찬기도회를 비롯하여 순복음 복미재단이사회, 복미총회 실행위원회와 상임위원회와 목사안수식, 그리고 순복음 세계선교회 이사장 이영훈목사 초청 LA축복성회와 한세콘서트 콰이어 특별공연까지 결코 쉽지 않은 행사들이었습니다. 사실 나타나는 큰일들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수고와 헌신은 몇 갑절이나 더 커야 하는 법입니다. 한국과 복미 각지에서 오르는 순넌들의 라이드는 복잡한 공황상황과 계속 바뀌는 스케줄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각기 다른 팀들의 식사와 일

정을 위해서 섬기는 일들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또한 평소 관계가 별로 없는 정치가와 사회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행사를 치르는 일에는 항상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겨 당황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역자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은혜의 마음으로 잘 섬겨주셨습니다. 믿음의 정성을 담은 웰컴 패키지와 선물들과 구디백은 많은 분들을 감동시켰고, 공항까지 마중나간 장로님들의 식사 대접과 권사회를 중심으로 한 교회에서의 식사는 때마다 감동과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빛과 그림자는 언제나 함께 하듯이 긍정과 부정도 같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이 되셔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살렘!

2026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달빛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달빛' 검색
유튜브: '달빛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기독교회(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목회학박사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철학박사(Ph.D)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SINCE 1977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의 새로운 이름
* 전 세계 온라인으로 온 캠퍼스와 실시간 수업가능 *

- 1977년 설립된 이후 지켜온 선교 지향적 교육을 토대로 다양하고 폭넓은 미래지향적 교육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 최첨단: 효율적인 온, 오프라인, 블렌디드 교육 플랫폼 제공
- 과정: 따라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로그램 (학사, 석사, 박사)
- SEVIS 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미국연방 인가된 학교
- 홈페이지: www.ptsa.edu | 입학문의: 562.926.1023 (ext 300)

15605 Carmenti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증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 (626) 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li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laurahelio@gmail.com
전화: 1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Th.M 신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 (626) 653 9547 EXT: #112/admin.korea@its.edu

144명의 여왕 (4인1조)
 2026 최고의 전미주 **조선우먼'S** 골프 챔피언십을
 개최합니다 (아마추어 Golfer only)

비즈니스의
 든든한 파트너,

cbb Bank 와

함께하는

제 1회 전 미주 **조선우먼'S** 골프대회



Strawberry Farms Golf Club

11 Strawberry Farms Rd., Irvine, CA 92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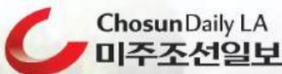
2026년 **3월 12일** (목요일)



- ▶ 접수 오전 9시30분부터
- ▶ 티오프 12:30 PM - Shotgun Start
- ▶ 참가비 \$185 (1인), \$740 (4인/팀당)
- ▶ 참가인원 총 144명(4인 1조)
- ▶ 부문 단체 대항전, 개인전 (일반부, 시니어부)
- ▶ 경기방식 개인 (Stroke Play)
- ▶ 조편성 단체 (상위 성적 3인의 스트로크 합산)
- ▶ 시상
 - 개인 및 단체 우승자에게 그린 재킷 수여 (챔피언 그린 재킷 시상식 포함)
 - 개인 메달리스트 (일반/시니어) 트로피와 부상
 - 단체 우승 및 준우승 트로피와 부상
 - 홀인원상 (2개 홀) 현금 2만불 (2개 홀 각 1만불씩)
 - 니어리스트 및 롱기스트 상패 및 부상
- ▶ 운영 프로헤드 및 전문 운영요원 배치 (USGA 및 로컬 룰 적용)

접수문의 (213)365-6800 | (213)315-5177 (박상신 본부장) - 접수마감임박 -
 4221 Wilshire Blvd., #224, L.A., CA 90010 • E-mail : chosunla25@gmail.com

주최



*본 광고에 사용된 인물 이미지는 Chat GPT AI로 제작된 가상 모델입니다. The person shown is a virtual model created using Chat GPT AI technology.

*Getty Image Bank 광고용 이미지



- 상품 -

- 개인 및 단체 우승 및 준우승 수상자들에게 \$3,000 지급
- 개인 및 단체 우승자에게 그린 재킷 수여
- 한국왕복 항공권, 골프채 및 골프용품, 호텔숙박권, 마켓쿠폰, 식당쿠폰, 화장품, 생활용품 등
- 미주조선일보 전자신문 무료구독권 (참가자 전원)

후원업체



※ 라운드 종료 후, 클럽하우스 연회장에서 시상식 및 고급만찬, 최대의 풍성한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목동 칼럼

하나님의 노멸로 돌아가는 사순절



신 병욱 목사
미라클LA교회
비전 50 선교회

오는 수요일은 재의 수요일이다. 사순절의 시작점에서 우리는 인간의 유한함을 고백하며 삶의 방향을 다시 묻게 된다. 이마에 재를 바르며 선포하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고백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온 허상과 자기의 self-righteousness(자기의), 극단적 인본주의에 대한 분명한 부정이

며, 부활과 영생을 거부했던 사두개인적 신앙으로 기울어 가는 비정상적 믿음에 대한 철저한 반성의 고백이다. 그러므로 재의 수요일은 단순한 의식을 치르는 날이 아니라, 믿음과 삶이 다시 시작되는 근본적인 출발점이다.

오늘의 시대는 비정상(abnormal)을 뉴노멀(new normal)로 포장하는 위험한 흐름 속에 있다. 위기와 혼란이 반복되자 사람들은 잘못된 상태에 적응했고, 그 적응을 ‘새로운 정상’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적응을 기준으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지 않는다. 익숙해졌다고 해서 옳은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반복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순절은 이 위험한 착각에 비상벨을 울리는 시간이다. 사순절은 우리에게 뉴노멀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오리지널 노멸로 돌아오라고

분명히 요구한다. 오늘의 뉴노멀은 편리함과 효율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예배는 상황에 따라 선택 가능한 콘텐츠가 되었고, 공동체는 필요할 때만 연결되는 느슨한 관계로 바뀌었다. 예배를 드리며 동시에 식사를 하거나 이동 중에 시청하는 모습도 더 이상 낯설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서는 자리에서 경외와 집중이 사라졌지만, 우리는 그것을 시대의 변화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한다. 비정상이 정상처럼 굳어지는 순간이다.

재의 수요일로 시작되는 사순절은 이러한 흐름을 멈추게 한다. 이 절기는 삶의 중심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드러내며, 성경이 말하는 정상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 “내가 기록하니 너희도 기록할지어다”(레위기 19:2). 기록함은 현실을 떠난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삶의 본래 질서다. 또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로마서 12:2)는 말씀은, 시대

에 맞추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새로 위치는 삶이 참된 정상임을 선언한다.

사순절은 이 거룩함을 다시 배우는 시간이다. 편리함과 효율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기준으로 삶을 재정렬하는 영적 여정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보여 주신 오리지널 노멸이다. 자기 보존이 아니라 자기 헌신으로, 성공이 아니라 순종으로 세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사순절은 단순히 고난을 견디는 기간이 아니다. 뉴노멀이 아닌 하나님의 오리지널 노멸로 돌아가는 터닝 포인트이다. 뉴노멀에 길들여진 삶의 흐름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의도하신 거룩한 오리지널 노멸로 돌아가는 결단의 시간이다. 다시 맞이하는 이 사순절이 우리로 하여금 익숙해진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오리지널 노멸을 향해 다시 달려가는 행복한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한다.

새라김 칼럼

연방정부 판결: 캘리포니아 교육기관, 학부모에 ‘성전환’ 정보 공개해야



새라 김 대표
TVNEXT.org

이번 SPPO의 판결은 캘리포니아 전역의 학부모들과 저희 TVNEXT 단체가 연대해 온 ‘부모 권리 연대(Coalition for Parental Rights)’ 소속 미국 단체들이 수년간 이어 온 활동의 정당성을 확인해 준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

캘리포니아 교육청과 주정부의 ‘학부모 권리 반대’ 정책

캘리포니아 교육청과 주정부는 자녀들의 성적체성과 관련하여 돌이킬 수 없는 성전환을 정상화하고 미화하는 정책과 법안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법안들은 학부모들과 TVNEXT와 같은 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어 왔습니다. 반대 여론이 찬성 단체보다 세 배, 때로는 열 배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캘리포니아 주 의회의 구조적 다수 구도로 인해 법안들이 계속 통과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통과된 법안들은 ‘학생의 사생활 보호’라는 명목 아래, 학생이 학교에서 새롭게 결정된 성적체성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아야 한다는 개념을 제도화해 왔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주정부가 통제하는 공립학교 뿐 아니라 차터스쿨까지 포함해, 학생의 사생활 보호 의무가 학부모가 아닌 주정부에 있다고 주장하며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성적체성 혼란을 겪는 청소년들과 이미 성전환을 경험한 후 되돌릴 수 없는 신체 변화로 인해 우울증과 극단적 선택의 위험에 놓인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미국 헌법과 연방법이 보장하는 학부모의 권리

연방법에 따르면 학부모는 미성년 자녀와 관련된 모든 교육 기록을 열람할 권리가 있으며, 학교에서 자녀에게 발생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집니다. 여기에는 이름 변경, 성별 대명사 사용, 이른바 ‘성별 지원 계획(Gender Support Plan)’ 관련 문서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록은 학부모가 자녀의 보호자이자 법적 결정권자임을 전제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이번 판결의 핵심은 학부모의 권리를 다시 명확히 확인했다는 점입니다. 판결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학군이 학부모와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고, 학생이 학교에서 다른 이름이나 대명사를 사용할 경우 학부모에게 통지하는 정책을 채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정부 관계자들(게빈 뉴섬 주지사, 롬 본타 법무장관, 뉴섬 행정부 등)은 학생 관련 기록이 ‘비공식적 기록’에 해당하므로 학부모 열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SPPO는 FERPA에 ‘비공식 기록’ 예외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름 및 대명사 변경, 성별 지원 계획 문서 등 학교가 관리하며 학생과 직접 관련된 모든 기록은 교육 기록에 해당하고, 학부모 요청 시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단체의 입장

캘리포니아 가족협의회(CA Family Council, CFC) 회장 조나단 켈러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뉴섬 주지사, 본타 법무장관, 띠먼드(Thurmond) 교육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학교가 자신의 자녀에게 무엇을 하는지 알 권리가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연방법은 명확하며, 어떤 이념적 시도도 이를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이번 연방정부의 판결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여전히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는 관련 법안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기도와 관심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tvnext.org@gmail.com.

지난주 미연방정부 미국 교육부 학생 개인 정보 보호 정책실(SPPO)은 캘리포니아 교육부(CDE)가 학교에 학생의 ‘성전환’ 관련 정보를 부모에게 숨기도록 압박해 온 정책이 가족교육권 및 개인정보보호법(FERPA)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HOLLYWOOD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的一切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p>이사의 명가(名家)</p> <p>귀국이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안 내에서 손님 임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기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p>시내이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p>자동차운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p>가주 삼성 통운(주)</p> <p>타주이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새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p>해외이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와이, 괌, 알래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	---

문의 1-877-580-2424 **새우수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KINGDOM ENTREPRENEUR

바이오텍 비즈니스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다

텔로유스 바이오텍 B.A.M

Business As Mission 성공사례 발표

AI와 로봇이 인간의 지성과 노동을 대체하는 시대, 세상은 지금 묻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 ✓ 비즈니스는 사명입니다!
- ✓ 사명은 영향력입니다!
- ✓ 영향력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텔로유스 바이오텍은 단순한 제품이나 수익을 넘어, 세포 신호 소통(Cell Signaling) 기술을 기반으로 생명을 회복시키고 사람과 공동체를 살리는 '킹덤 비즈니스(B.A.M)'의 실제적 모델을 실현해 왔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기업가로 부르심 받은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이론이 아닌 검증된 **성공사례**를 통해

- 비즈니스가 어떻게 선교가 되는가?
- 신앙과 기업이 분리되지 않는 실제 구조
- 생명 회복 기술이 만들어내는 사회적·영적 영향력
- 차세대 Kingdom Entrepreneur를 위한 비전과 기회를 실제 사례와 간증 중심으로 공유합니다.

- **일 시** : 2026년 **2월 28일** (토) 오후 3시
- **장 소** : 텔로유스 본사 (6820 Orangethorpe Ave, Suite G, Buena Park, CA 90620)
- **초청 대상** : 기독교 실업인 · B.A.M에 관심 있는 분, 바이오텍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분
목회자 · 선교사 · 차세대 창업가 40-50대 환영
- **신청마감** : 2월 25일까지 예약 필수 (RSVP) (큐알코드 스캔 후 등록)
- **문의** : 714-732-8477 Email: pjkim2000@gmail.com
폴 킴 선교사 (TeloYouth Biotech B.A.M Director / TeloYouth 젊음회복프로그램 수석코치)

www.TeloHealing.com
www.teloyouthkorean.com



폴 킴
젊음 회복 프로그램 수석코치
텔로 바이오텍 뱀 디렉터



Dr. Chris Morris
세포 신호 폼물레이터



Dr. Tina Johnson
세포 신호 폼물레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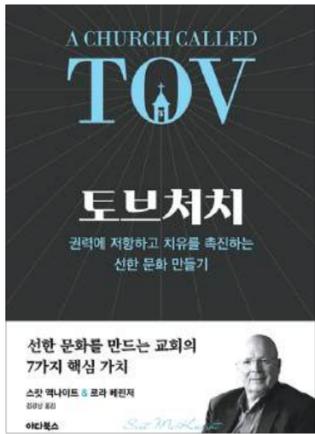
(큐알코드 스캔 후 등록)

주최: 텔로유스 젊음회복회사 주관: TELOYOUTH BIOTECH B.A.M

후원: CBS T DTV CH. 20-12 미주기독교방송 우리방송 AM1230 FM108.3 **기독교일보** The JoongAng Korea Daily 중앙일보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교회는 충성뿐 아니라 선함도 추구해야

상처받은 치유자들과 상처받은 저항자들, 토브 처치



토브처치

스캇 맥나이트, 로라 베린저 | 김광남 역 | 아다북스 | 344쪽 | 22,000원

『토브처치』는 단순히 ‘교회론’을 말하는 책이 아니다. 그보다 권위주의적인 교회 문화의 유해성과 그로 말미암아 구조화된 악이 어떻게 교회를 병들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한편, 이런 권위적인 유해한 문화에 맞서 ‘토브처치’, 곧 공감, 은혜, 사람 우선, 진실, 정의, 섬김, 그리고 그리스도 닮기를 키우는 문화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안내하는 책이다

『토브처치』는 지금도 권위 또는 권력과 침묵의 논리에 둘러 있는 한국교회에 치유와 변화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다. 무엇보다 “교회는 여전히 희망이다”라는 사실을, 그러나 그 희망은 ‘토브’의 회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권력에 저항하고 치유를 촉진하는 선한 문화 만드는 교회 7가지 핵심 가치

1. '공감'을 키우라(empathy)
2. '은혜'를 키우라(grace)
3. '사람'을 우선시하라(people-first)
4. '진실'을 말하라(truth)
5. '정의'를 키우라(justice)
6. '섬김'을 키우라(service)
7. '그리스도 닮기'를 키우라(christlikeness)

이렇게 적나라한 고발이 있을 수 있을까? <토브처치> 공동 저자인 로라 맥나이트 베린저는 20년 이상 윌로우크릭 교회에 참석하면서 그곳에서 겪은 충격적인 교회 문화와 리더십 문제를 그녀의 아버지 스캇 맥나이트와 함께 이 책을 통해 밝혀냈다.

스캇 맥나이트는 신약성경과 교회 역사 전문가로, 노턴 신학교에서 석좌교수로 있으면서 80여 권의 책을 저술한 학자다. 2005년 <예수 신경>으로 '크리스천티티데이 올해의 책'을 수상했고, 자신의 딸 로라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 나누기: 어린이를 위한 예수 신경>을 쓰기도 했다. <토브 처치>는 부녀가 쓴 또 다른 책인데, 전작과 성격이 매우 다르다.

아마 <시카고 트리뷴>에 실린 빌 하이벨스 목사의 성적 비행 문제에 충격을 받고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거대한 성장과 부흥을 보이고 있던 교회가 '토브(선하다는 뜻의 히브리어)'의 특성에서 상당히 멀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나서 쓴 책이 아닌가 싶다.

책엔 피해자들을 위한 기도문과 그들의 용기와 담대함에 관한 감사의 표현도 담겨 있고, 세속 권력과 비즈니스적 성공 모델을 버리고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라는 권면이 주 내용이지만, 동시에 윌로우크릭 교회와 소버린 그레이스 미니스트리, 사우스웨스턴 침례신학교 등의 문제를 계속 다루기에 고발성 기사문을 읽는 느낌도 지울 수 없다.

저자 두 사람이 말한 '토브 처치'란 하나님께서 보시고 '선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교회를 말한다. 특별히 교회 문화를 강조하는데, ①공감하는 문화 ②은혜가 넘치는 문화 ③사람을 우선시하는 문화 ④진실을 말하는 문화 ⑤정의가 살아있는 문화 ⑥섬김을 장려하는 문화 ⑦그리스도를 닮도록 돕는 문화 등 7가지 교회 문화가 살아있는 교회가 착하고(선하고) 충성된 교회라 불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윌로우크릭 교회처럼 정말로 다방면에서 충성스러운 결과물을 내는 교회도 '선하다'는 평가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회가 위에서 언급하는 여러 건강한 문화를 잃어버렸다면, 실제로 저자들은 빌 하이벨스 목사와 측근 리더들이 피해자를 공감하기보다 가해자를 두둔하는 문화, 은혜를 베풀기보다 냉정한 비판과 보복을 가하는 문화, 일을 사람보다 앞세우는 문화, 진실을 틀어막고 정의를 통제하며, 섬김을 강요하고 그리스도를 닮는 것에 무관심한 문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전반적으로 <토브처치>가 말하려는 문화가 복음적이라는 사실에 동의하고, 알지 못한 사이에 교회가 점점 기업처럼 변해가고, 목회자가 기관을 운영하는 전문 경영인이 되어가는 것을 심각하게 주의하고 거부해야 한다는 올바른 결심을 가져다 주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일방적 고발을 이 책을 통해 처음 접하는 독자들은 빌 하이벨스나 C. J. 매허니와 같은 일꾼들을 나쁜 사람으로만 평가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다.

저자들이 피해자들을 통해 들은 정보가 거짓이라고 생각하거나 나쁜 문화를 교회 안에 심은 리더들의 잘못을 어떻게든 축소하려는 생각은 조금도 없지만, 잘못하면 저자들이 말한 '토브'의 성격이 그들의 비판 가운데서도 발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감과 은혜가 없는 비판, 의혹과 진실을 뒤섞고,

정의가 편향되며, 사람이 아니라 옳고 그름만 따지는 비판이 될 수도 있어서다. 한편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저자들의 마음은 참 소중했다.

추가로 이 책을 추천한 베스 무어는 여성 강연자이자 저자인데, 존 맥아더 목사에게 성경이 말하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기준으로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맥나이트와 베린저는 그 비판 자체를 나쁜 것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존 맥아더 목사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선하지 못한 문화를 조장하기 위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신 성경에 충성하기 위해, 누군가 물어봤을 때 그것은 성경과 다른 모습이라고 비판적 답변을 한 것이다.

성경은 율법에 관하여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롬 7:12)"라고 평가한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인데, 과연 저자들은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는 성경의 분별과 해석에 관해서도 '선하다'는 평가를 할 것이냐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 또한 다른 견해와 주장을(그것이 바른 견해라고 할지라도) 나쁜 문화라고 매도할 수 있다. 피해자를 위로하고 공감하며 대신 목소리를 내고 격려하는 대부분의 노력이 선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선하

신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서 어긋난 것에 대한 비판까지 문제로 삼는다면,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죄라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를, 교회에 혐오 문화를 심고 은혜 문화를 제거하는 일이라고 비판한다고 상상해 보라.

두 가지 면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이 책이 말하려고 하는 바에 우리는 모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제자가 되라"고 하신 것처럼, 또한 그분이 스스로 섬기는 자로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교회는 세속 권력과 조직, 시스템의 도입을 완강히 거부해야 한다.

모든 형식을 파괴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자들이 말한 나쁜 문화를 만들어내는 형식을 멀리하라는 것이다. 교회가 크든 작든 이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다. 성경적 교회를 꿈꾸고 기대하고 추구하는 모든 독자가 어떤 문화를 교회 가운데 조성해야 할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도구로 이 책을 활용하기를 바란다.

조정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But he said to me,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for my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2 CORINTHIANS 12:9

출가산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메디케어 전문 Agent

Annie Moon Lic# OB51378 **문혜영**

안심하시고 믿고 맡겨주세요!

“2026” 달라지는 혜택, 많은 약 보험의 많은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Annie Moon이 필요하십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계해 드립니다. 메디케어를 처음 받으실 분, 타주에서 이사 오신 분 등 모든 메디케어에 관한 문의는 **애니 문**과 상담하세요.

연락주세요! Annie Moon
T.(213)503-1669

메디케어 Plan, Disccaimer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440 Shatto Pl, #301., Los Angeles, CA 90020

SMG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홍보대사 **고두심**

We do not offer every plan available in your area. Currently we represent 15 organizations which offer 97 products in your area. Please contact Medicare.gov or 1-800-MEDI-CARE, or your local State Health Insurance Program to get information on all your options.

[서성록, 한 점의 그림] 장선희, 애국 운동과 자수(刺繡) 예술

나라와 여성들 위해 한 땀 한 땀 수놓은 독립운동가

한국 자수예술 개척자이자 여성 독립운동 독특한 경력 2.8 독립선언서 전국에 밀송 대한민국 애국부인회 주도 자수로 여성 경제 독립 도움 목회자 남편 남북, 신앙으로

장선희(1894-1970)는 한국 자수 예술의 개척자이면서 여성 독립운동가로 알려진 독특한 경력의 소유자다. 그의 역할은 정신여학교 선배인 김마리아(1891-1944)가 도쿄에서 가져온 2.8 독립선언서를 전국 방방곡곡에 밀송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한 것이다. 그 자신도 직접 황해도 재령에 선언서를 전했다.

뿐만 아니라 장선희는 독립운동을 하다 형무소에 수감된 운동가들과 가족들의 생활구제, 유족 지원을 위해 힘써줄 부인회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혈성부인회' 일원으로 구급된 인사들의 구제활동을 폈다.

'혈성부인회'는 정신여학교 동창을 주축으로 결성된 단체(대부분 기독교인들로 구성됨)로, 회비만으로는 구제 사업을 펼치기 부족해 참기름 등을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도 했다.

당시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국내에 비밀 활동요원들을 파견해 비밀문서를 국내 요로에 전달하고 군자금을 마련해야 했다. 이 일을 위해 부인들의 협조가 절실했는데, 장선희는 조직 구축과 자금 모금에 앞장섰다(김성은, '장선희의 삶과 활동: 독립운동 및 기여교육', 『이화사학연구』, 2013, 126쪽).

장선희는 1919년 전국 도·부·군 등을 순회하면서 지부장을 물색해 본부에 추천하고 신임장을 교부했다. 그 결실로 전국 16개 지부에 16명의 지부장이 세워졌다.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이들을 '대한민국 애국

부인회'로 부르며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는 3.1 운동 이후 최대 여성조직으로 성장하며 항일운동을 전개해 갔다(양현혜, '장선희의 독립운동과 교육활동', 『대학과 선교』, 한국대학선교학회, 2017, 234쪽).

그러던 중 일본 경찰에 발각돼 대구 감옥에서 4년간의 옥살이를 했다. 그녀가 수감된 살인범 감방에는 죄질이 나쁜 죄수들이 많았는데, 그녀는 친절하고 공손한 태도로 그들의 마음을 샀다.

죄수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한글을 가르쳤는데 신앙심이 배양되자 양심을 회복해갔고 글자를 읽게 되자 손가락에 물을 찍어 널판지에 자신의 이름을 써보기도 하였다. "장선희 여사는 신앙이 깊었으며 그 신앙을 몸소 실천으로 봉사하였다.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모든 일을 주님 앞에 의지하고 그 뜻과 같이 실천하려고 노력했다(단운 장선희 선생 기념사업회, 『만년 꽃동산 장선희 여사 일대기』, 인물연구소, 1985, 177쪽)."

옥살이를 마친 뒤 장선희가 선택한 길은 '자수의 세계'였다. 그녀는 주위의 도움으로 1922년 동경여자미술전문학교로 유학을 떠났다.

그녀가 '자수'를 전공하게 된 것은 갑작스런 일이 아니었다. 1914년 정신여학교를 졸업한 후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현 경기여고) 기예과 3학년에 편입해 자수를 배운 적이 있었다. 이때는 자수가 근대 여성교육 과정에 편입돼 핵심 과목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그녀는 이 방면에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했다.

장선희가 동경여자미술전문학교로 유학을 간 것은 독립운동으로 차일피일 미루어오던 자수공부를 하

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대부분 동경여자미술 전문학교 자수와 출신들은 졸업 후 여학교 교사로 활동했고 ...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실용적인 직능인으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켰다. 박혜성, '한국근현대 자수를 기획하며', 『한국근현대자수』,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2025, 18쪽.)"

일본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장선희는 모교인 정신여학교에서 교원으로 재직했고, 1927년 서대문에 '조선여자기예원'을 설립해 한국 자수 강습과 보급에 나섰다. 이곳은 여성들에게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수, 편물, 조화 등을 가르쳤다. 수강생들에게 자수와 조화를 가르치며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동시에 여성의 자활에 중점을 뒀다.

'조선여자기예원'은 동아일보 후원으로 하기 수예강습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도 했다. 일반 부인에게 자수법을 보급시키고 여교원이란도 학교 사정에 따라 수예교사를 겸임하게 되는 경우 수예를 배워야 했으므로, 이들에게 맞춤 강의를 했다. 1920년대는 교육과 직업이 여성의 자의식 형성에 주요한 계기로 떠오른 시기로, 장선희의 공에 교육은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이루는 현실적 직업교육의 의미가 강했다.

이후 장선희의 삶에서는 자수 예술가로서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 중 하나가 '근역 삼천리' 제작이다. 우리나라 지도 13개 도(道) 위에 무궁화 꽃과 잎사귀를 수놓은 도안(圖案) 작업이 그것이다.

이 도안은 그녀의 애국심과 자수 예술이 만나 탄생한 동양 자수였다. 이 도안이 전국으로 확산되며 공감대를 형성하자, 종로경찰서에 불려가 심문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작가는 일본 경찰의 감시 속에서도 독립정신을 불태우고 계몽하는 일을 계속해갔다.

해방 후 장선희는 예림원(이화여대 미술대학의 전신)에 동양화과, 서양화과, 도안과, 자수과가 개설될 때 자수과 학과장 및 교수를 역임하면서 후학들을 양성해 냈고, 학과목에 '동양화'를 두어 자수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했다.

그런가 하면 1959년에는 '대한여자미술학원'을 설립해 생활 장식품으로서 조화(造花)의 전문 기술을 전수했다. 해방 후 창립된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에서 10년간 심사위원을 맡는 등 바쁜 나날을 보냈다.

작가는 두 차례 개인전을 가졌는



▲장선희, 금강산 자수병풍(연도 미상).

데, 1963년 중앙공보관에서 열린 제1회 조화전에는 74점이 출품됐다. 신문에 그의 작품 분위기를 알 수 있는 한 점의 사진이 실려 있다.

전시장 중앙에 차지하는 것은 조화로 만든 꽃동산인데, 지금으로 치면 설치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전시장을 아예 동산으로 꾸며 각종 꽃들로 장식하면서 진풍경을 만들어 냈다. 미국문화원장 G. H. 데이몬은 "오아나무, 빛나무 그리고 진달래 모두가 인공화단에 피어난 조화라고 하기에 너무 아름답다(동아일보, 1963. 2. 25)"고 소감을 피력했다.

1966년에는 고회를 맞아 신문회관에서 두 번째 개인전을 가졌다. 이 개인전에서는 각종 꽃만이 아니라 나무, 과일까지 소재의 폭을 넓혔으며, 굵은 철사나 나무 등걸 등의 오브제를 사용하는 과감한 실험도 펼쳤다.

1964년 뉴욕 박람회 참여 소식이 국내에도 알려지는 바람에 신문회관 고회전 역시 그의 작품을 관람하려는 방문객들로 북적였다. 전시를 본 소설가 박화성은 이례적으로 그의 작품을 '선경(仙境)'이라고 부르며 전시평을 남겼다.

"인간 문화재, (그것이) 수만 명을 모조리 희열과 감격과 신비로서 사로잡을 수 있는 창조 능력의 대명사라면 나는 서슴지 않고 이 최고의 영예를 장선희 여사에게 드리고 싶다(박화성, '무아의 황홀경', 동아일보, 1966. 4. 18)."

제자인 엄정윤에 따르면 장선희 작가는 '단모자수'라는 새로운 기법을 창안해냈는가 하면, 동양화의 사실적 표현을 자수 세계로 옮겨 자수를 순수미술의 분야로 확립시키는데 기여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그의 생애를 말할 때 놓치는 부분이 있다. 6.25 전쟁 때 남편 오학수 목사가 납북되는 슬픔과, 노경에 접어들면서 '남북통일'을 탄식조로 염원했던 것은 그녀가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남편과 고향 평양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을 것이다.

기독교 신앙이 아니었다면 과연 그렇게 '거센 풍랑'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작가는 독립운동과 공예교육을 통한 여성들의 개화 운동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서성록 명예교수
안동대 미술학과



▲중앙공보관에서 열린 장선희 개인전에 출품된 '조화로 꾸며진 꽃동산(경향신문, 1963. 2. 19)'.

집안의 대를 이어 나가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할머니 손 맛 그대로!
48시간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 맛!
최고급 고기만을 엄선!

송영 투크 설렁탕
단체주문 환영
T.(213)277-1339

2717 W Olympic Blvd. #108 LA, CA 90006(구) 베버리순두부 자리

가주간호학교
Veritas CNA School

Veritas CNA School (간호보조사 과정) 가장 안정된 직장과 다양한 베네핏이 주어지며 의료 분야의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며 간호보조사 자격증 취득 후 취업을 보장하며 직접 도와 드립니다.

가주보건국(CPHD)의 정식인가를 받은 가주 간호보조사 학교는 CNA Certification (간호보조사 자격증) 시험 준비 코스가 있습니다.

6-8주 과정이며 한국어 강의도 있습니다
병원, 클리닉, 양로병원 등 다양한 의료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오버타임 수당, 휴가와 병가수당, 은퇴연금, 의료보험등 다양한 혜택과 취업보장! 16세이상 소시얼 넘버와 텍스 넘버가 필요합니다.

지역 : 엘에이, 파사데나, 산 마리노

■ Contact information
Phone: T.(213)216-4944
jungyeemail@gmail.com
http://www.veritascareer.com

VERITAS CAREERS COLLEGE

최근 이란 시위 사태 보도서 간과된 한 가지, '이슬람 급진 원리주의'

한동안 이란 시위 사태는 전 세계 톱뉴스였다. 이란 정부의 강경 진압과 그로 인한 희생자들의 모습은 세상을 비탄에 잠기게 했다. 골목마다 집집마다 희생자가 있어 울음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보도(BBC 코리아, 1월 31일 보도)도 있었다. 한 지인은 이런 상황을 두고 "고구마를 먹다 목이 딱 막히는 것 같다"고 표현했다.

우리에게는 국가 권력의 총칼 앞에서 자유를 외쳤던 민주화 운동의 기억이 있기에, 이란의 상황이 더욱 더 생생한 것 같다. 비록 현재는 국제사회의 역할 관계와 '자국 안보'라는 실리적 선택으로 상황이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으나, 속히 독재 정부가 심판받고, 이란인들이 자유와 평화를 되찾기를 간절히 바란다.

언론과 미디어는 이번 사태를 다루며 주로 경제와 정치, 국제 관계 및 군사력에 집중하고 있다. 사태 원인을 이란의 경제난과 개인의 자유 억압에 초점을 맞추는 모양새다.

그러나 필자는 언론과 '전문가들'이 간과하고 있는 핵심 지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가장 본질적 정체성인 '이슬람 급진 원리주의'이다.

이번 사태의 이면에 엄존하는 거대한 산과 같은 그들의 아킬레스건이 바로 이것이다. 이번 과정을 통해 드러난 이슬람 급진 원리주의의 실체를 살펴보고,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인지 짚어보고자 한다.

1. 시위 참가자에게 적용된 '모하레베' 죄목

시위가 한창이던 1월 중순 경,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시위자들을 "전부 사살하라"고 직접 발표령을 내렸다. 이에 이란 군경은 기관총으로 시위대를 사살했으며, 심지어 투항의 뜻으로 손을 들어 올린 사람들까지 아랑곳하지 않고 사살했다.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거리에는 선



▲이란 반정부 시위 관련 보도 화면. 지난 1월 11일 이미 2천 명 사망설이 불거졌다. ©연합뉴스TV

열이 난자했다. 이란 검찰은 이번 시위를 '모하레베(Moharebeh)'로 규정하고, 시위대를 사형에 처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란 사법부 수장은 수감 시설을 방문하여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참수하고 불태웠다면, 우리는 임무를 신속하게 완수해야 한다"며 극형 집행을 시사했다(조선일보 2025. 1. 15). 이란 혁명 법원은 이전부터 반정부 시위자들에게 '모하레베' 판결을 내려왔다(BBC 코리아, 2022년 12월 14일 보도).

언론은 이 죄를 보통 "무기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위협해 공공의 불안을 조성하는 범죄"로 설명하지만, 본질은 '알라와 이슬람에 대한 반역'에 있다.

'모하레베(moharebeh)'는 페르시아어 명칭이고, 샤리아 법학(Fiqh)상 명칭은 '히라바(Hirabah)'이다. 이는 꾸란 5장 33절에 기록되어 있다.

"알라와 그의 사자(使者)께 대항하여 전쟁하며(yuharibuna)이 땅에서 부패를 일삼은 사람들에게 대한 보응은 그들이 죽임(qatl)당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손들과 발들이 엇갈리게 잘리거나, 혹은 그 땅에서 추방이라(꾸란 5:33)".

이 구절에서 "알라와 그의 사자에 대항하여 전쟁한다"는 것은 이슬람 종교와 그 지도자들에 대해 반역하는 것을 의미한다. 처벌 근거가 되는 '히라바(irabah)'라는 용어 자체가 바로 '전쟁하며(yuharibuna)'라는 동사에서 파생됐다. "이 땅에서 부패를 일삼는다"는 의미 역시 단순한 윤리적 방종이 아니라, 이슬람 체제를 위협하는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것을 뜻한다. 즉 '히라바'는 개인 윤리나 단순한 형사 범죄가 아니라, 이슬람 종교와 신성(神性)에 대한 반역죄다.

신정일치 국가인 이란에서 종교적 반역은 가장 엄중하게 다루지는 죄목이다. 이번 시위 사태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 욕구인 빵과 자유를 달라는 외침조차 '알라에 대한 반역'이 되고 처형의 명분이 되는 것을 보고 있다. 이슬람 급진 원리주의의 치명적 위험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2. 잔혹하고 공포스런 형벌

이번 사태로 인한 희생자 수는 최대 3만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타임' 보도, 주간경향 2026.2.6일자) 길거리에 늘어선 시신 가방들이 즐비한 것을 쉽게 목도할 수 있다. 이들은 혁명군의 기관총 앞에

스러져간 가엾은 영혼들이다. 그 현장은 생지옥과 다름없었다.

이슬람 원리주의의 공통점은 형벌이 잔혹하고 공포스럽다는 점이다. 앞에서 언급한 꾸란 5장 33절을 보라. '히라바'를 범하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구체적 형벌이 기록되어 있다. 죽임당함(참수형을 의미), 십자가형, 손과 발을 엇갈리게 자르기(사지 절단) 등 참혹하고 야만적인 형벌이다.

'이슬람 급진 원리주의'가 지배하는 곳에서는 이러한 형벌이 공적 공간에서 자행된다. 과거 IS가 이라크와 시리아를 정복한 뒤 '히라바'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잔혹하게 처형했다. 모술과 라카 등 여러 도시에서 군중들을 모아놓고 정식 재판없이 즉결 심판을 강행했다. 그것은 대중에게 공포를 심어 체제를 유지하려는 목적이었다(IS가 자행한 끔찍한 형벌들은 참수, 추락시킴, 십자가형, 화형, 익사, 폭살, 투석형 등이었고, 이에 대해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오늘날도 급진 원리주의가 지배하는 곳에는 '히라바' 형벌이 살아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꾸란에 명시되어 있고, 샤리아 법학(Fiqh)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이란

이 시위자를 처단하는 방법은 바로 이러한 샤리아 법학과 직결되는 것이다.

3. 율법학자(종교인)가 신의 대리인으로 통치하는 구조

하메네이는 시위 초기부터 이번 사태를 "미국과 이스라엘이 기획한 음모"로 규정하며, 시위에 참여하는 것을 이슬람 움마 공동체에 대한 '배신'이자 '히라바'로 간주했다. 즉 시위 참여는 곧 신의 대리인인 최고 지도자에게 저항하는 것이며, 이는 곧 알라에게 저항하는 것이라는 논리이다.

이러한 '이슬람 지도자에 대한 반역'의 논리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를 넘어, 이란 헌법의 근간인 '벨라야테 파키(Velayat-e Faqih, 아랍어 Wilayat al-Faqih, 법학자 통치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여기서 '파키'는 아랍어로 율법학자(Faqih)로서, '알라의 율법을 해석하는 종교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벨라야테 파키'는 최고 종교인이 국가 통치자가 되어 입법·행정·사법권을 독점하고, 신의 대리인으로서 군림하는 신정 정치의 핵심 모델이다.

이 사상의 원형은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가 메디나를 통치하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그는 입법과 통치, 판결권을 모두 소유한 절대적 지도자였다. 뒤를 이은 정통 칼리프 시대 역시 정교일치(政教一致) 체제하에 신의 대리인이 제국을 통치하는 구조였다.

이러한 구조에서 이슬람 규율에 대한 저항은 곧 지도자에 대한 저항이었고, 그것은 곧 신에 대한 반역이었으며, 그 처벌은 극도로 참혹했다. 이슬람 창시자가 '히라바' 형벌을 직접 시행한 예를 하디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사히흐 알부카리 233, 6805, 사히흐 무슬림 1671a, 수난 아비 다우드 4364 등).

오늘날 이란 체제에서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단순한 국가 수반이 아니다. 그는 실종된 12번째 이맘(al-Mahdi al-Muntadhar, 종말의 날에 재림할 메시아적 존재)의 대리인으로 간주돼,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한다.

10년 전 이라크 모술에서 '이슬람 국가(IS)'를 선포했던 알바그다디 역시 스스로 신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이와 유사한 신정 통치를 펼친 바 있다. 이나빌 이슬람 연구가 대표 저서: 『그들은 왜 이슬람을 떠나는가(CLC)』 [다음호에 이어서]

학생모집 **캘리포니아 두란노대학교**
 B.th, Th.M, M.Div, D.Min, Th.D coafs-07-388665
 캘리포니아 전체에서 **신학박사 인가 대학은 3곳**뿐입니다.
 ■ 학교운영하실 분 \$7만불 (신학철학책 1만권 포함)
 ■ 나성중부교회 김 호 박사 / 캘리포니아 디렉터
 213-507-1933

김영길 목사의 **가슴으로 읽는 성경**
 지친영혼을 깨우는 아침 10분 처방전 **규알코드 촬영 후 구독신청해 주세요**
 영혼을 위한 아침 처방전(Morning Prescription) [복용법] 매주 월/수/금 아침, 출근길이나 조용한 시간에 복용하세요. [효능] 불안 완화, 마음의 편안, 영적 회복
 Youtube.com / @Youngkingamsa

문선영의 메니토크
나이가 드니 보험료가 부담스러운데 방법이 없을까요?

질문 안녕하세요 문선영 선생님, 저희 94세 어머님께서 지난 달 세상을 떠셨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적지만 저에게는 큰 돈인 10만불을 생명보험으로 남겨주고 가셨습니다. 홀 어머니가 저 혼자 키우시면서 고생만 하셨는데 언제 가입하셨는지 저에게 뭐라도 주신다니 이 생명보험을 주셔서 어머니 가시는 길에 그 마음 때문에 더 많이 슬퍼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일찍 와이프와 사별하고 딸 하나 키우지 벌써 27년이 됐는데 와이프 저 세상 보내고 나서 바로 생명보험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고요. 평생 보험이 두개가 있는데 제가 사망하면 딸은 60만불을 받게 됩니다. 한달에 이 보험 두개로 들어가는 돈이 \$592인데, 제가 벌써 69세인데 3년 전 은퇴 하고 나서 \$592 내는 게 가끔은 부담스러웠습니다. 보험료를 내고 나면 한달 인컴이 넉넉한 편이 아니라, 아껴서 살면 그럭저럭은 하는데 여유가 없네요. 그런데 어머니가 주신 이 10만불을 받으니 이걸로 생명보험을 한꺼번에 다 내버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 라디오와 유튜브, 신문으로 문선영 선생님 말과 글을 잘 듣고 있는데 이 10만불로 생명보험료를 다 내는 것을 도와주실 수 있으신지요.

제 에이전트는 누구였는지도 기억이 안나고 당연히 연락도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문 선생님 도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상당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 메니토크의 재정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상당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의 메니토크의 재정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선생님 사연 귀하게 잘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선생님께서 10만불 남겨주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놓이셨는지 감히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마음 그대로 선생님은 따님을 위해 생명보험을 들어놓으셨겠지요.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니 은퇴 인컴이 넉넉치 못한데 거기에 보험료가 부담이 되실 수 있지요. 그런데 현재 생명보험 두개가 27년 전에 가입하셨다면 지금 10만불이라는 큰 돈이 프리미엄으로 한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은 월 프리미엄으로 계속 낼 수 밖에 없는데, 첫째 이유는 보험이 택스를 내지 않고 받고 쓰는 플랜이기 때문에 돈이 마음대로 아무때나 많이 낼 수가 없습니다. 가입 초반에는 가능하지만 지금은 큰 돈을 프리미엄으로 넣는 시기는 이미 지났고요, 둘째 이유는 언제 사망하실 지 모르는데 돈을 다 내놓고 똑같은 사망보상금 60만불을 딸에게 남겨 주느니, 최대한 조금씩 길게 내시다가 사망한 후에 남겨주시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이 10만불을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연세에 10만불을 어뉴이티에 가입하시고, 고정으로 매달 딱딱딱 나오는 플랜으로 찾아 쓰시면 일년에 \$8,887, 매달 \$740.53가 평생 사망할 때까지 선생님 은행구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10만불을 넣고 100세에 사망하지만 \$266,606

을 찾아 쓰시는 결과가 되고, 썩을 찾아 쓰시다가 사망하시 90세에 사망하신다고 해도 10만 원금 10만불에서 다 못찾아 쓰신다면 그 나머지가 따님에게 가는 것 뿐 아니라, 이 제 선생님이 가입하신 생명보험 두개에서 사망보상금 60만불은 따님에게 걱정없이 남겨보탬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보험료 나가는 부담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여유분으로 생길 \$148.53이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멤버십 비용으로 쓰시거나, 한달에 친구분들과 몇차례 외식을 하실 수 있는 여유비용으로도 쓰실 수 있으시겠지요. 10만불을 넣고 한달에 \$740.53

Sunyoung Moon
 Financial Professional | 재정전문가
 626.827.9599
 SYMOONMONEYTALK@GMAIL.COM
 WISECALIFORNIA 문선영의 메니토크 양 라디오에 문선영의 메니토크

다시 **성령**의 권능으로!

Once Again,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제2회 미주 이단 대책 세미나

‘하나님의교회’의 미혹을 경계하라!

목회자 세미나

- *일시: 2026년 2월 17일(화) 오전 10시~오후 2시
- *장소: 한길교회 (고광선 목사 시무)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
- *대상: 목회자 선착순 40명 등록: 무료, 점심 식사제공



강사 : 탁지일 교수

평신도 세미나

- *충현선교교회 (국윤권 목사 시무) 2026년 2월 18일 (수) 7:30PM
- *사랑의 빛 선교교회 (윤대혁 목사 시무) 2026년 2월 20일 (금) 7:30PM
- *동양선교교회 (김지훈 목사 시무) 2026년 2월 22일 (주일) 1:00PM



{스캔후 등록}

주최 :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파이널리프리국제선교회, 기독교일보

교회회복과 선교를 위한 연합기도성회 사역

2월 기도회

평화교회 (김은목 목사 시무)
2538 W. Pico Blvd., LA, CA 90006

연락처 213.251.9191 (교회)

3월 기도회

주님의교회(최훈 목사 시무)
333 S. Western Ave., LA, CA 90020

연락처 213.700.7311 (교회)

4월 기도회

평강교회(송금관 목사 시무)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 CA 91030

연락처 213.393.9136 (교회)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

일시: 2026년 4월 5일(주일) 6:00am
장소: 미정

교회회복과 선교를 위한 영화 ‘부흥’ 시사회

일시: 2026년 4월 21일(화) 11:00am(예정)
장소: 미정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213)700-7311(총무: 최훈 목사), (213)999-1923(사무총장: 최영하 목사)
2538 W. Pico Bl., Los Angeles, CA 90006